

第218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2月27日(火)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현황보고  
가. 노동부소관

審査된案件

- 1. 현황보고  
가. 노동부소관 ..... 1

(11시08분 개의)

○委員長 劉容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국회 임시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니까 계속 보고받는 것으로 하지요.

○委員長 劉容泰 장관,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한국노총대의원대회에  
노동부장관으로서 꼭 참석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  
어서 제가 거기에 잠깐 참석하고 온다는 것이, 중  
간에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  
게 되었습니다. 劉容泰 위원장님과……

- 1. 현황보고  
가. 노동부소관

○委員長 劉容泰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소관 업  
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赫圭委員 장관 어디 가셨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차관이 나와서 일단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라도 보고하세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장관님께서 도착하셨는데  
아직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셔서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朴赫圭委員 아니, 지금 차관님께서 보고하시려  
고요?

○勞動部次官 金相男 예.

○朴赫圭委員 그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10시에 와서 지금 1시간10분을 기다려도 장관님께  
서 안 오셔서 개의하지 못했는데 장관님 기다린  
김에 아주……

(노동부장관 회의장 입장)

장관님!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  
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고, 장관이 오셨으

구하신 것입니까, 임의로 하신 것입니까?

○委員長 劉容泰 오늘 아침에 차관이 와서 노총  
행사 때문에 조금 늦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朴赫圭委員 장관이 직접 해야지 어떻게 차관이  
대신해서…… 그래도 양해를 해주셨어요? 아니, 위  
원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환노위원회가 같이 망신  
당하는 것 아닙니까? 또 10시에 오라고 해서 저희  
는 10시에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데 사전에 양해도 없이 이 문제로, 노총행사가 어  
떤 행사인지 저는 모르지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제가 위원장님께 직접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  
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를 위원장님  
께서도 오늘 10시, 그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  
으시니까 같이 그 자리에 가도 무난하겠습니다, 결  
례가 안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어제 받았는데  
제가 그 보고를 너무 믿다보니까 그런 결례를 했

습니다.

○**朴赫圭委員** 아니, 제가 장관님께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행정실이나 위원장님과 조율이 되었으면 여기의 많은 공무원들도 미리 와서 기다리지도 않고 또 저희들도 와서 이렇게 기다리는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그 점 저도 불찰이고 또 이 문제를 주관하는 저희 직원들도 좀 매끄러운 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赫圭委員** 사실 저하고 金晟祚 위원님은 장관님 오시면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똑같은 사람 될까봐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예요. 그점 알고 계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자, 말씀하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劉容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8회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닌 지식과 창의력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와 국민이 경제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고 취업문이 좁아져 실업자수가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전임자 급여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관계법령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개정되어 노사협력이 어느 정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사태가 말하듯이 구조조정과 임금교섭,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업무의 역점을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세우고 고용안정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실업을 해소하고 생산적 복지 이념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고자 합니다.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朴赫圭委員** 이것 유인물 없이 하는 것이예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내용이 산만해서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17일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40대와 50대 중·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2월23일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업훈련과 인력양성도 지식정보시대의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 맞추어서 실시해서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고 IT, BT 등 미래산업 분야의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노조참여적 구조조정을 권장해서 고용불안에 따른 노사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간 현안사항이나 노사관계, 제도개선 문제는 가능한 한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근로자들이 복지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부당해고,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법령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 상한선을 현재 72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 금년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赫圭委員** 장관님! 죄송하지만 오늘 양해를 못 하겠는데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이 개략적인 인사말은 장관님이 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기획실장이 해온 것이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 또 계속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추진계획에 앞서 우선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우리 장관님의 철학이 담긴 제안설명을 방금 유인물없이 하셨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金晟祚委員** 그래도 장관님께서 여러 분야에 걸

쳐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하겠노라 이렇게 표명하시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나열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委員長 劉容泰 실질적인 업무보고는 별도의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모두인사는 종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사전에 배부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간단하게 요지만 그 취지만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金晟祚委員 그렇지만 장관님께서 한국의 노동정책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알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 계획에 앞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말씀을 노동정책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담아가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데……

○金晟祚委員 아니, 유인물 준비 전혀 안 하셨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런데 실무자가 통상적인 인사말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인물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金晟祚委員 아니, 통상적인 관례로 유인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하면서 저는 안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통상적으로 그냥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委員長 劉容泰 金晟祚 위원님, 법안을 제안설명하거나 예산안을 제안설명할 때는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보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은 유인물없이 구두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니까 줘……

○朴赫圭委員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노동부 출신 위원장님이시라고 자꾸만 노동부 대변만 하시는데, 위원장님은 노동부 대변인이 아니시고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엄있는 위원장님이세요.

왜 노동부는 위원장님을 곤란하게 만드시고, 저희들까지 같이 그렇게 망신을 주시면 안 되지요.

여기 뒤에 보좌관들도 있고 여기에 속기사도 계시지만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유인물을 받은 다음 다시 시작하지요.

위원장님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업무 현황보고 모두에서는 유인물이 없이 장관의 인사를 듣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유인을 해서 사전 배부한 것만이 관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오늘……

○朴赫圭委員 위원장님! 절대로 한 번도 없었어요. 어제 저희가 받았고 여태까지 받았지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 기억도 없이 어떻게 위원회를 해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알지요.

○委員長 劉容泰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劉容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赫圭委員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노동부장관께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관례상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신다고 하니 기획관리실장님이 하도록 하세요.

○委員長 劉容泰 朴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금년도 저희 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업무추진실적에 이어서 금년도 노동행정 여건을 전망해 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어서 주요현안사업장 동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아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취업능력 개발 등 실업감소 및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했고 구조조정 관련 노사갈등 해소와 상생의 노사관계 기반조성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비정형 근로자 보호, 근로복지 제도개선 등 근로자 권익증진에도 노력했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난해 1월 실업률은 5.3%였으나 중

합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연평균 실업률을 4.1%로 낮추었습니다. 총예산 5조9,407억원 중 5조237억원을 집행하여 361만6,0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실업대책의 사업별 예산과 수혜인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金文洙委員** 예산사업만 그렇습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일반예산도 있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보험금을 예산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합했습니다.

○**金文洙委員** 총예산 5조9,407억원 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용어의 개념으로 보면 잘못 되었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라고 보는데요.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들도 내는 것이 있고 이렇지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렇습니다. 총재원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예산이 얼마이고 고용보험기금이 얼마이고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에도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히 실업예산을 많이 쓰는 것처럼 착오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거나 부적절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해서 지적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특히 엄밀하게 보고하심으로써 오히려 정확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실업상황에 적극 대처했습니다.

일용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고 근로조건 보호강화와 건설일용근로자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 동절기 실업증가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작년 11월15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실직자 취업전담팀을 운영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공공근로를 확대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사업도 10월1일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제도를 작년 7월1일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 청소년·대졸 미취업자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 정부지원 인턴제를 5만7,00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을 위해 임대점포를 지원하고 심층 직업지도를 위한 성취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취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22만2,000명, 재직자훈련을 123만명을 실시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근로자 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지식기반산업 훈련직종을 개편해서 공공훈련은 7.9%에서 13.5%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웹마스터 등 미래 신산업 훈련프로그램을 50종 개발했습니다.

고용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고용안정·실업급여 등 제도를 개선해서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 상한액도 인상한 바 있고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대부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도 아래 표와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노사관계 부문입니다.

참여·협력의 신노사 문화를 확산시켜나갔습니다.

열린 경영 확산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분기별로 기업경영설명회 날 행사를 유도·지원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기업경영이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장의 노사협력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사관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내·외투기기업의 노사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국내외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조조정과 보상심리의 영향으로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나 불법파업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분규건수와 불법 분규건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전, 철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 노사갈등을 노사정대화체를 구성해서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했고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등의 노사갈등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대화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노사자율에 의한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권장했습니다.

임금상승률은 8.0%로 전년도 12.1%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협약인상률이 7.6%, 실제상승률은 8.0%입니다. 전국적 노동정책설명회, 지역순회세미나 등을 통해서 경제상황과 임금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고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학금, 의료비,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유형별 보호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402개소를 특별점검해서 191개소를 시정했습니다.

노동관련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했습니다.

OECD특별모니터링 중단 및 APEC HRD 실무그룹회의 의장직 수임 등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SOFA 노무조항 개정협상도 작년 12월28일 타결된 바 있습니다. 아동노동 철폐 등 7개 ILO협약 비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행정 서비스를 재고시켰습니다.

하위법령, 산하단체 등 유사 행정규제 1,502건에 대해서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홈페이지 신설 등 노동정책 홈페이지를 확충하고 외부기관의 노동행정 고객만족도 평가 등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노동행정 여건을 간략하게 전망해 보면 우선 고용부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은 99년2월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 경기적 요인, 건설일감 감소 등 계절적 요인으로 1/4분기까지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2/4분기부터는 실업자가 뚜렷이 감소되어 하반기에는 실업률 3% 중반대의 고용안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자 중 청소년·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하반기에 실업률 3% 중반대의 고용안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를 내주세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부분을 살펴보면 올해 노사관계는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요구율의 격차가 크므로 4월 이후 본격화되는 임단협 교섭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상시화에 따라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대우자동차의 경영상 해고에 따른 노사갈등을 임단협 교섭과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9일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관련사항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고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에 있어 일부 불안요인이 해소되었으나 근로시간단축, 비정형근로자 보호 문제 등이 계속 노사간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고용안정과 노사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자율을 보장하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한다면 하반기에는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노동부 노동정책의 기본목표를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두고 이를 위해 추진할 정책과제로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추진, 지식정보화에 부응한 인적자원 개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실현, 근로자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여건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능동적인 노동외교의 전개에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실업률을 3%대로 낮추어서 고용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종합실업대책 외에 청소년 및 중장년층 실업자를 위한 보완실업대책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SOC투자 확대, 정보통신·환경·문화관광 등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주택개량사업 등 일자리 창출시책을 추진하고 생명의 숲 가꾸기,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토공원화사업 등 연평균 12만개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4분기에 가용재원을 집중 투입해서 실업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단기 일자리 제공예산의 45%인 2,935억원을 투입해서 18만1,000명에게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정부 조달물자도 조기에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졸업자 등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인턴제 2만9,000명 이는 당초 1만9,000명에서 보완실업대책으로 1만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전산보조원 채용 5,000명 등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소년 실직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웹프로그램 등 재취업 훈련을 6만명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5만명에서 보완실업대책으로 1만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청소년 실업자의 IT인력화를 위해 IT우수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을 2만명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과 연계해서 대규모 지역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3월 중 일제 구직등록기간을 운영해서 신규 졸업 청소년의 구직등록을 유도하고 인턴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 40, 50대 중장년 등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업이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전직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해서 이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컨설팅 위탁비용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우자동차에 노동부·인천시·대우자동차 공동으로 희망센터를 2월23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장년층 실직자 재취업 훈련을 2만명 실시하겠습니다. 구조조정 퇴직자는 채용장려금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재취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실업자 조기취업을 위해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영업 창업 점포지원

및 창업자금 대부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1만명 취업을 목표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업무를 추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확대하고 권역별·장애유형별 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장애인직업능력평가센터도 4개소에서 12개소로 8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지원수준을 분기당 1인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을 현재 36개소에서 46개소로 1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운영비도 월 6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상반기에 전면 개정해서 고령자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용근로자 생계안정 및 능력개발을 위해서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를 1일 5,000명 실시하고 동절기 건설일용직 일일훈련도 1일 1,000명에서 2,04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령자인재은행 추가지정을 어디어디에 하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줄이겠다 했던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취업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같이 한 번 내주시지요.

그다음에 일용근로자 부분은 지금 이미 동절기가 다 지나가니까 이미 했겠네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월28일까지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거의 다 했을텐데 그 실적을 하나 내 주세요.

그다음에 그 앞에도 보시면 12쪽에 중장년층 실직자 재취직훈련 2만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취업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런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처음 1월달 실업대책에서 1만명을 실시한다고 계획했다가 이번에 1만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金文洙委員** 1월의 실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월17일 저희가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그렇게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金文洙委員** 알겠습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구인·구직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실화 하겠습니다.

42개 시·군지역에 고용안정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인력은행 7개소를 전문인력 취업지원센터로 특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심층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등 취업상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Work-Net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증설하겠습니다.

해외취업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외취업알선 창구를 5개 지역에 운영하고 해외 고용주 및 알선업체 초청 만남의 장 행사를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현지 교포를 구인개척 위원으로 위촉·활용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해외취업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99년도에……

○**金文洙委員** 그 나온 것을 하나 내주세요. 2000년, 1999년의 실적을 한 번 내주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알겠습니다.

올바른 고용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제도 정착을 위해 파견업체 및 사용자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민간직업소개사업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허위구인광고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용관리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통합을 추진하고 고용보험적용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가입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실업자 생계안정지원을 위해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사람도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외자, 종료자 등 생계안정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사업의 조기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취업알선, 직업훈련, 인턴, 창업지원 등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자활사업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실업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사회안전망, 실업극복 성공사례 등을 홍보하고 실업대책의 수혜율을 높이고 고용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1/4분기 중에 집중적으로 실업극복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평가하겠습니다.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노동부 주관 관계부처 실업대책점검회의를 통해서 독려하고 3월까지 전국 고용안정센터 등 실업대책 관련부서의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현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식정보화에 부응한 인적자원 개발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기관을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존 기능대과 신설 기능대를 정보기능대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서울강서기능대, 부산기능대를 서울·부산정보기능대로 개편하고 신설 중인 아산기능대는 충청정보기능대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대구 섬유패션기능대와 사천 항공기능대도 금년 3월에 개교합니다. 광전자·디지털 미디어 등 신기술 연수를 위한 신산업 기술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산업 직종을 13.5%에서 20%까지 확대하고 네트워크 설계, 웹 서버 운영 등 신산업훈련 프로그램을 50종 개발·보급하고 국가자격종목을 30종 신설하겠습니다. 외국전문가를 초빙해서 신기술분야 훈련교사를 1,500명 육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훈련성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지원해서 훈련기관간의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주도 인적자원개발 지원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 8개소를 지역내 중소기업컨소시엄 훈련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정보화기초과정 훈련을 실시하고 인터넷 훈련을 활성화 해서 훈련기회

를 확대하며 경영자·관리감독자 등 계층별 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훈련기관을 지역주민·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센터로 개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기능장려금을 인상하고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금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명장전, 기능경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실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은 상생의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노사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활성화로 노사간 신뢰가 형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를 기업단위의 노사대화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매뉴얼을 보급하고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열린경영 실천 지도, 기업경영설명회를 통해 경영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 이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별·업종별 노사감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노사협력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문제를 대화로 자율 해결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사 공동이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성과의 확대 및 공정한 배분을 지도하겠습니다.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성과는 공정하게 분배하여 생산적 협력관계가 되도록 유도하고 고성과 사업장 우수사례를 보급하며 노사문화 혁신 시범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직무상 발명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기업경쟁력, 고용안정 등을 고려한 생산적 임금교섭을 할 수 있도록 임금·물가 등 기초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현장행정으로 분규를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관리 개선 등을 위한 노사관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분규예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진행사업장, 공공부문 등 국민경제적 영향이 큰 사업장을 중점

지도 대상으로 선정해서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노사분규 특별대책반,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金文洙委員** 잠깐만요,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볼 때 특히 방금 보고한 20쪽같은 경우는 좋은 용어를 다 나열해 놓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앞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고서 전반이 다 그런데 특히 19쪽, 20쪽의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부분, 그러면 미사여구 나열이 정책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또 계속 너무 지적이 많을 것 같고 장관님, 노동부 업무보고를 제가 여러 번 받아보지만 올해 첫 보고인데 이렇게 미사여구만 나열되어 있는 업무보고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의도가 있는지, 일부러 구체적인 것은 빼고 보고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곡절이 있습니까? 내용이 없이 전부 미사여구인데,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신노사문화 관련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신노사문화운동을 추진한다는……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번 업무보고는 연두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첫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연두에 첫 보고를 하시는 것인데, 물론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시겠지만 국민을 향해서 하는 첫 보고인데 과거 어느 보고 때도 이런 식의 보고는 노동부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무엇이다 그다음에 특히 업무현황이 어떻다 그래서 이리이러한 데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나가겠다는 어떤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자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좋은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것이 업무계획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업무추진계획인데 그러면 실상을 좀 이해하고 어떻게 고치겠다는 핵심이 나온단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든지 이래서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나가고 또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용이 없이 그냥 미사여구만 나열되어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려스럽고 업무를 장악 못해서 그런



지 업무과약이 부족한지, 숨길 것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勞動部長官 金浩鎮** 신노사문화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金文洙委員** 방향은 철학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앞에 나오면 되고 이 방향에 따라서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鎮** 아니, 거기에 구체적인 것도 있고……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전에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鎮** 예를 들어서 18페이지에 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 8개소를 지역 내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구체적이고 대단히 실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페이지의 우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관행 정립 이런 것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신노사문화는 그렇게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안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천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제시할 것도 있고 또 방향성을 제시할 것도 있고, 사안별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文洙委員** 제가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할 수 없고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점 유감이고 지금 어떻게 고칠 수 없으니까 계속하시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위원님, 신노사문화이 부분은 예를 들면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또 상세한 업무추진지침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계속 보고하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근로자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도산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보장 한도를 현재 1인당 최고 72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도 170억원의 재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호텔·백화점 등 비정형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부당하고, 법정수당 미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을 현재 공사 규모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자료요청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최저임금이행 지속지도 이 부분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숫자와 그 적용된 노동자 숫자 그리고 그로 인한 지도결과·조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작년 11월24일부터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때 파악된 것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도 계속 많이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올해 어떤 정도로 한다 이것도 좀 내주시고 비정형근로자들 중에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별도 보고를 따로 하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이 몇 명쯤 예상되는지, 물론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렇게 할 때 수혜자가 얼마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을 개략적인 것이라도 한두 줄씩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22페이지입니다.

연소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취업지원을 위해서 ILO 기준에 부합하는 연소근로자 보호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업인가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제도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이행실태를 7월에서 9월까지 집중 점검하고 연소자 아르바이트 등 취업실태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근로기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은 작년 10월23일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휴가 등 세부사항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근로자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5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비·경조사비 대부규모를 확대하고 중·고생 자녀 장학금지급을 확대하겠으며 무주택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용우수사례발표회 등을 통해 도입을 확산하고 기금사용한도 확대 등 운용의 신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근로자종합복지관 추가건립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곳에 추가건립을 하는지 그 선정기준을 내주세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다음 산재근로자 보호사업으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투자를 375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센터를 울산에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성 암, 신종직업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산재근로자 요양비용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여건 조성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상 성차별 관행 개선을 위해서 성차별분쟁예방 및 취약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남녀고용평등주간을 4월1일부터 7일까지로 설정해서 남녀고용평등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실을 10개소에서 5개소 더 추가해서 성차별 상담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도 확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점검을 보고드리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노사공동 자율점검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전년도 노사자율 점검사업장 중에서 취약사업장을 선정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4월에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우선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서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그 비용의 사회분담과 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보전,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해서 육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지난 3년간 직장보육시설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3년 동안의 연차별 실적을 내주세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다음 취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사업으로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을 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창업희망자에게 임대점포를 지원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여대생에게 기업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신규대졸여성전담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며 취업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산재예방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사업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재발생원인과 규모별로 특성화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락·낙하 등 재래형 반복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제정·보급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추진하겠습니다.

이동 안전교육·건설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제조업 가상 안전체험교 육과정도 개설하겠습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실천 캠페인도 KBS, SBS 등 과 공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종합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재예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도록 규모·업종별로 위험성을 평가해서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예방 시설개선 자금의 용자·보조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안전보건종합전시관을 어디에 건립하시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이것은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2005년까지 저희가 건립할 것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장소 말입니다.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아직 저희가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金文洙委員 안전보건종합전시관이 안전연구원에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기본적인 구상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제 말씀은 이것이 전시성이 될 것인지, 실제로 안전연구원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 점검해서 글로 하나 주세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취약부문별로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석유화학 등 공정별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지도하고 산재사고가 많은 조선업체는 사망과 상해사고를 종합 환산해서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겠습니다. 해빙기·장마철·동절기 등 3대 취약시기에 건설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농업·임업근로자 등에 대한 재해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수첩과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관리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작업환경 유해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역학조사를 확대하는 등 직업병 조기발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자료 등과 연계해서 직업별 근로자 건강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朴洋洙委員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월 특수지역에 3년 살다 왔는데 보고에 작업환경 유해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한

다고 그랬지요? 현재 반월에는 1,500개의 유해업소가 있고 시화에는 2,34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3,840개의 유해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료를 내주세요. 현재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내주시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현재 근로자들이 11만5,0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그동안에 건강진단을 몇 차례 했고 내용은 어떻게 어느 병이 지금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내주세요.

제가 3월5일 환경부 정책질의할 때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합니다. 알겠습니까?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능동적인 노동외교를 전개하는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우리의 노동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정당한 평가를 하도록 해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동개혁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ILO, OECD 등 노동관련 국제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노동실상을 올바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아·태지역 노동부문 교류협력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ILO 아·태지역 2001년도 간사국 수임을 위해서 6월 ILO 총회에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태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한일 공동프로젝트도 구체화하겠습니다. ILO 협약비준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1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데 23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외투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방문상담, 노동정책설명회 등 특별지원을 하고 외투기업 노사협력모범사례발표회도 3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는 노무관리지원반을 파견해서 지도하겠습니다.

SOFA협상이 작년 말 타결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한 미군 인사규정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재보험 적용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장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 동향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리면 대우자동차 노

사는 작년 12월29일부터 금년 2월16일까지 열두 차례의 경영혁신위원회를 갖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조가 정리해고없는 구조조정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교섭이 결렬되고 사측은 2월16일 1,750명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각 공장별로 보고드리면 부평공장의 경우 사측은 2월12일부터 3월6일까지 휴무조치를 하고 2월17일 이후 관계자 외 공장출입을 금지하고 노조의 주요시설물 점거 및 방화를 우려해서 경찰에 위험시설물보호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월19일 17시45분에 부평공장에 경찰력이 투입되어서 공장 내 농성 중인 노조원을 해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20일부터 사무직원을 동원하여 정상가동을 위해 공장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창원·군산·부산공장은 2월20일 이후 본조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2월22일부터 2월23일까지 창원공장만 2시간 부분파업하고 군산·부산공장은 정상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원공장은 2월26일은 정상가동했습니다만 어제 18시부터 19시 사이에 쟁대위에서 27일 2시간, 28일 4시간 부분파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저희 부의 조치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노사측 관계자를 접촉하여 교섭을 지도하는 한편 취업지원센터, 1사1인 일자리 나누기사업, 희망센터 설립추진 등을 통해 취업알선, 창업지원, 직업훈련,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 및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보고드리면 사측의 휴무조치, 여타 공장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총파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노조 상급단체 및 학생 등 외부지원이 강화될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금속연맹, 대우차노조 등과 합동으로 2월20일부터 24일까지 집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속연맹은 2월28일 연대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3월1일 민주노총 주관으로 전국동시다발집회 등 대정부 규탄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민주노총 본부, 금속연맹 등 상급단체에 대해 조기수습 노력과 불법행위 자체를 지도하고 부평공장의 여타 사업장의 정상가동을 지도하겠습니다.

창원·군산·부산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해당 지방관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노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해 희망센터를 2월23일부터 설립해서 6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방금 대우자동차 관련 보고에서 나온 희망센터 설립·운영계획의 자세한 자료가 있겠지요? 그것 위원님들께 보고한 적 없으니까 한 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리고 전문컨설턴트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다음 대우자동차의 부평공장 같은 경우는 폐업의 가능성을 정부 측에서 많이 보고 있지요? 정부 측에서 이에 관해 검토보고된 문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즉, 산자부 등 타 부처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인천광역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노동부가 협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저희가 폐업과 매각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전혀 협의된 것이 없다고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金文洙委員**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우자동차의 구속자, 부상자, 노조 측이 제시한 주요한 쟁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여기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국회의 책임도 있겠지만 국회는 하루 때우는, 지나가는 곳이다, 가능한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괜히 자세하게 쓰면 물고 뜯을 수 있으니까 그냥 미사여구를 나열해서 잘 지나가는 것, 통과의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그런 기색이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 중에 필요한 것은 지금 빨리 준비하도록 하고 조금 더 국회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할 것은 협의

하시고…… 인천지역 문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기 李浩雄 위원님이 계시지만 인천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지역 일대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계속 집회하고 잡아가고 검문검색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데 노동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과연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몇 자 적어 놓았는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릴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는 신속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朴洋洙委員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더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장 환경유해 정도에 따라서 사업장 차등관리를 했는데 그 사업장명과 사업자가 누구인가, 근로자수, 분류내용, 혹시 환경관계직원이 출장을 갔으면 출장을 누가 갔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했는데 직업병을 종류별로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발견된 것이 32개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확인해 주시고 그 중에서 뇌경색 등 뇌질환과 관계된 것을 조사해 주시고 역학조사의 내용과 그것이 병원인지 학교인지 어느 단체인지 그것도 명시해서 내주시시오.

가능하면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제가 정책질의를 하니까 9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쪽 자료와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도 종전과 같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고 첫 번째 질의를 하실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한 분이 15분 이내로 제한해서 시간을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시게 되면 15분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文洙 위원 말씀하시지요.

○金文洙委員 산하단체의 보고는 생략하기로 했습니까?

○委員長 劉容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오늘이 올해 들어 첫 회의이기 때

문에 원칙적으로 산하단체의 보고를 다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제한과 여러 가지 일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국정감사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지적되었으나 충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 또 이곳의 업무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근로복지공단은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작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내용과 함께 보험이사, 감사의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마련된 보고를 같이 받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업무현황보고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朴仁相 위원 말씀하시지요.

○朴仁相委員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보고하는 것을 보면 보고할 적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도 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면 질의하면서 따지고 들어갑니다. 업무보고 중에 우리가 金 위원님 같이 전체가 달려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하루종일 해도 보고를 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고는 보고대로 받고 질의시간에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朴仁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지금 산하단체에 대한 보고를 일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金文洙 위원께서 요청하신 산하단체 중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받고 그 후에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순서에서 하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근로복지공단이사장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金文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나름대로 보완하고 또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음에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작년에 우리가 인사문제 부분을 이

야기했는데 이사장님과 당시에 요구했던 감사, 보험이사 이분들은 계속 임기까지 흔들림이 없이 임기를 채우겠다 그런 결심들을 다 하셨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시다마는 감사는 감사대로 또 보험 쪽은 보험 쪽 대로 각 이사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계속 그냥 임기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그렇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좀 지켜봐 주십시오.

○**金文洙委員** 그리고 노동부 본부감사에서 지적됐던 사람들은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예, 조치가 되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밑에서 잘못된 것이지 이사장 본인이나 감사, 이사등은 전혀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시네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을 맡고 있는 이상 관리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하여튼 그 문제는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劉容泰 위원장, 申溪輪 간사와 사회교대)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저희들 업무현황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실적,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산재의료관리원 업무현황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실적으로 산재·고용보험 운영상황입니다. 2000년12월 말 현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수는 70만6,000개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69만3,000개소입니다. 지난해 산재보험이 4인 이하 적용확대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수는 전년 대비 183%, 고용보험은 15.3%가 증가했습니다.

산재보험료 징수액은 1조9,555억원, 고용보험료 징수액은 2조575억원으로서 각각 79.4%와 89.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지급액은 1조4,563억원으로서 임금인상, 요양환자 증가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14.3%가 증가했습니다. 산재요양

지정병원은 총 4,388개소로서 3만3,125명의 산재환자가 요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재근로자 재활과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안산·광주 등 2개의 직업재활훈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71명이 훈련 중에 있고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산재장해자가 810명이 있어서 여기에 8억8,0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일선지사에 직업재활상담원 55명을 배치해서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직업재활상담을 실시해서 679명을 직업에 복귀토록 하였습니다.

재활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영업 창업에 필요한 점포임대자금 11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33명이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활정착금 53억원, 중·고생 장학금 43억원, 대학생학자금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로자 생활안정 등의 복지증진 문제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현황은 2000년12월 말 현재 정부출연 및 복권판매 수익금 등으로 해서 2,155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판매촉진 전략 및 노력으로 복권판매 수익은 꾸준히 향상이 돼서 98년에 3억원, 99년에 18억원, 2000년도에 89억원을 올렸습니다. 월 평균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각각 유인물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숙사·식당 등의 기초 복지시설 설치자금으로 6억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으로 3억7,700만원을 용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로자 임금채권보장사업은 98년7월 사업수행 이후에 2000년12월말 현재까지 총 3만1,481명에게 1,008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변제금 회수액은 276억원으로서 27.4%를 회수했습니다. 다음 실직자 생활안정과 창업지원입니다. 98년4월부터 채권발행 등을 통해서 실업대책사업 재원 1조8,719억원을 조성해서 2000년12월 말 현재까지 총 21만9,000명의 실직자에게 1조4,2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 지원내역은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506억원, 실직여성가장 등의 자영업 점포임대 사업으로 457억원 등 총 963억원입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은 민간사업입니다마는 1998년 6월 운동본부 발족 이래 총 1,141억원을 모금해서 705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기금잔액은 436억원이 남았는데 그동안 이자가 있어서 52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말까지 사업을 종료키로 했으나 기

업의 구조조정 및 실업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할 생각입니다. 현재 긴급 구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향후 제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그 관계는 주관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하고 문화방송, 근로복지공단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운영체계는 종교인 대표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스님, 강원룡 목사 이분들이 지금 대표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위원회가 있어서 사실상 업무는 그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근로복지공단이 주로 합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무국에 직원을 파견해서 주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특별히 복지공단에서 돈을 많이 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돈을 낸 것이 아니라 당초에 14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성금을 내 주셨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金文洙委員** 그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얼마를 냈느냐 이것입니다.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저희들이 돈 낸 것은 임금감액을 해서 한 10억원 낸 것은 있습니다. 마는 이 돈은 근로복지공단이 낸 것은 아닙니다.

○**金文洙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궁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든가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보고를 좀 신속하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다음은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金文洙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노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는 5년째 됐지만 자료제출이라든지 간단한 지적을 못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위원회에서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중에 이것을 다 모아서 자료도 나중에 다 따로 하라 이렇게 운영하는 회의진행은 우리 국회에

는 아무 데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로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보고하십시오.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험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착시키겠습니다.

적용누락사업장 일소 그리고 보험료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용목표는 산재보험 2000년 실적인 70만6,000여개소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84만1,000개로 19.1%를 확대 적용시키겠습니다.

○**全在姬委員** 2001년 적용률 목표가 몇 %입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81%입니다.

○**金文洙委員** 복지공단 자체의 대상 사업장이 얼마인데 그의 몇 %를 적용하겠다는 목표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알겠습니다.

○**全在姬委員** 주실 때 연도별 적용 목표율의 산출근거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알겠습니다.

징수목표도 2000년 산재보험은 1조9,555억을 2001년도에는 2조581억으로 5.2% 확대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2조575억을 2조3,388억으로 13.7% 확대 징수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확정정산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체제를 정비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요약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입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특별감사입니다.

우리공단 감사실에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서 현대건설에 대한 재정산 실시 부당성 여부를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하던 중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중단하고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감사원 감사가 언제 끝납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이미 끝났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언제까지 정리가 되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金文洙委員** 3월 초면 됩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공사금액 적용착오 사업장에 대한 조치입니다.

확정정산 시 매출액 또는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 재정산을 실시했습니다. 총 26개소였습니다. 그 중에 19개소를 정산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정산 중입니다.

다음에 담당자의 자의적인 보험료 부과사태에 대한 조치입니다.

첫 번째로 확보보험료 산정방식이 잘못 되었다라는 곳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재정산 완료한 것이 97년도분 1개소, 정산실시 중에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건설가계정, 미완성공사 등 미포함되었다라는 곳이 11개소인데 지금 정산완료된 것은 4개소이고 나머지는 정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공제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대상은 3개소입니다. 현대건설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감사원에서 정리 중에 있고 나머지 한화, 흥화공업은 당초 정산 시에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공제가 되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조치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산재보험 13개소, 고용보험이 66개소입니다. 지역본부 단위로 건설업확정정산조사단을 175명으로 구성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산재보험 97년도, 98년도는 정산완료했고 고용보험은 97년도분은 정산완료했고 98년도분은 아직 33개를 정산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납부고지서의 직인누락, 금액 미기재해서 백지고지서를 발송한 문제에 대해서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납부고지서를 바로 전산으로 출력해서 납부하도록 제도화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징수절차상 하자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확보보험료 산정방법의 제도개선과 직무교육 강화문제입니다.

확보보험료 산정방식을 총공사금액 곱하기 노무비율 방식에서 직영인건비 플러스 외주비 곱하기

하도급노무비율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급자 재비를 포함하지 않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연구원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총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정립 문제입니다.

총공사금액에 대한 정의를 일선기관에 시달했습니다. 건설업 확정정산 실시요령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전 지사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 있는 그대로를 가급적 풍부하게 포괄적으로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빠진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의있게 만들어 전 지사에 배포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징수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초청, 확정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월29일부터 2월17일까지 720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입니다.

확정정산의 전문가 활용과 정산대상 사업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규모 이하 업체는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아서 서면 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 정도에 해당하는 정산대상 사업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도급노무비율을 조정하여 보험료 이중납부 비용 공제제도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공사금액에서 보험료가 이중납부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해서 공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노무비율을 별도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은 적용제외 근로자가 많아서 실임금 파악이 곤란하므로 산재보험과 다른 별도의 노무비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징수업무 전반에 관한 본부의 관리 및 지도·감독을 직접 하겠습니다.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의 명칭·정산일시·조사자·정산결과 등을 전부 전산화해서 본부에서 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확정정산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민원 처리능력이 부족한 민원인에게 후견인을 지정,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인후견인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민원인의 업무처리 종결 시까지 후견인이 직접 맡아서 관리·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의 1회방문으로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민원 서식간소화와 첨부서류를 축소하였습니다. 각종 서류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펌핑시스템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재보험금, 반환금 등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급여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다음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원 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 질의회시·지침·사업장 실무편람 등을 DB화 해서 현장업무 처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을 통한 보험료 전자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해서 산재·고용보험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장요양 서비스를 내실화해서 그때그때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확충입니다.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산재장해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자영업 지원을 위해서 점포임대 자금을 8명에 40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업재활상담원을 현재 1명에서 2명 정도로 증원해서 전문직업재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종결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적응훈련을 지원하고 산재장해자들의 의료재활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신규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6개월 동안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직업재활센터 1개소를 금년 중에 울산 근처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재근로자 지원 확대입니다.

중·고생 장학금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도 역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음에 근로자 복지확충과 내실화입니다. 복지사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보험 전면 확대실시에 따른 복지사업 대상과 서비스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근로복지지표와 근로자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복권 판매율 제고를 통해서 재원을 확

충하겠습니다.

복지복권 발행목표를 연 6,000만매를 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One-Line 복권발행을 위한 연합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여기에 충실히 구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중저가 보너스 상품 선정으로 당첨기회 확대 및 판매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사은행사를 실시해서 메리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와 연계·홍보 등의 다양한 판매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확대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를 계속 대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여가활동 및 복지시설의 지원입니다. 금년도 가요, 미술, 문학, 연극 등 4개 부문에 걸쳐서 제22회 근로자문화예술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근로자 미술·음악 교류전을 현재 상당한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도 505구좌를 이용해서 근로자 300인 미만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7개소를 추가 건립하는데 포함, 부산, 부천, 군포, 연기, 울산 진해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사업주 단체에게 보육시설 설치비 및 비품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용자 20억원, 지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부사업에 대한 근로자 신용보증제도의 도입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라는 공단에서 수행하는 근로자와 실직자 대부시 보증부담 완화를 위하여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단이 신용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강화문제입니다.

임금채권 보장수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지급목표는 2000년의 458억원을 2001년에 765억원으로 67% 증가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변제금 회수율의 제고입니다.

회수목표는 작년에 27%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8%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강화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재취업시까지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가계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506억원이었던 것을 2001년에는 1,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37%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여성 가장 및 중·장년층 장기실업자에게 자영업 창업을 위한 점포대여사업을 올해도 계속해서 하되 278% 증가된 1,700억원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창업에 필요한 5,000만원 이내의 점포를 최장 6년까지 대여해주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관광업 종사 실직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과 관광안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문화관광부와 협조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2차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신규 창업준비자금 600억원을 대부하고 월세점포 인정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재의료관리원 업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보고가 다 끝나셨나요?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자료를 일부 보았는데 조성과 지출의 세부현황을 자료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金文洙 위원장의 질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실업극복국민운동기금 잔액 436억원 이것을 어떻게 쓴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쓸 계획은 정했는지 그 여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험료 확정정산과 관련해서 소송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그 소송진행 현황을 주시고요, 다음에 총공사금액에 대한 정의를 일선기관에 시달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공사확정보험료 정산요령을 제작해서 배포했다는데 그 배포한 원본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건립을 확충한다고 해서 7개소 추가설립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육시설 건립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金文洙委員** 장관님, 우리가 환경부 감사를 할 때 자원재생공사 사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인이 사직하지 않아서 직권면직한다는 것 들으셨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들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노동부장관님은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당시 국정감사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직권면직에 대한 권한은 환경부장관만 가진 것입니까? 노동부장관도 어떻게 같은 상임위원회인데,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데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金浩鎭** 자원재생공사 사안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안이 어느 정도 징계대상 면에서 불적에 유사한 것인지 아닌지 비교한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문제는 작년 9월·10월에 우리 노동부에서 중점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또 그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지금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아마 3월 초쯤에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봐서 저희 나름대로 응분의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감사원감사를 장관님이 요청하신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金文洙委員**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청했습니다. 장관님이 장관님으로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예산결산위원회까지 가서 거기 정부 전 부처가 온 가운데 감사원장한테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文洙委員**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관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노동부 두 부처를 관여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적하고 아무리 해도 도대체 장관님들, 동서남북 구분을 못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든 기강과 근간이 흔들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부, 노동부에 대해서도 비주요부처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관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로 장악을 안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아무리 지적해 드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정을 한다 구조조정을 한다, 누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제있는 사람부터 구조조정을 안 하고 죄없는 사람들 무조건 자르고 밑의 하급직에 대해서 자꾸 하기 때문에 모든 사정, 구조조정이 설득력이 없어지고 국가의 공정성, 정의성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사원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게 할 것입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국정감사와 이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그리고 감사원감사 결과가 3월 초에는 나온단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해서 개혁 차원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文洙委員** 하여튼 제가 더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자정능력을 갖지 못할 때, 그 자정능력은 누가 가지느냐 가장 최고의 지휘자인 장관님께서 자기조직을 자정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바로 외력에 의해서 타력으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부담스럽고 또 옹호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또 감사원이 달려들고 나중에 그것이 안 되면 국민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 장관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제 대체로 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질의도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첫 번째 질의시간은 15분씩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全在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 이하 노동부 직원들 그리고 산하기관에 계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노동부 업무보고 중에 노동부에서 **申溪輪** 위원, **金文洙** 위원 등이 요구한 대우자동차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우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이 있기 전에 민주노총을 다른 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민주

노총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회사가 계속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계속 고용보장만을 주장하면 국회의원으로서 근로자를 지원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대우자동차가 빨리 회생되어야만 고용도 늘어나고 그곳에 있는 근로자도 편안히 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부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는 중재노력을 하려고 애썼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공권력 투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은 차후의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짚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저는 대우자동차가 12차에 걸친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좀더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월15일부터 3월6일까지는 여차피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휴무기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휴무기간만은 전적으로 이용해서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휴무가 시작된 나흘이 지난 2월19일 오후 5시경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권력이 좀더 자제력을 발휘하고 회사도 좀더 노동조합과 대화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회사는 할 수만 있다면 해고회피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도 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무급 순환휴직이라고 하는 교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물론 사용자가 얘기하는 정리해고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근접되어 가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더 진전되지 않은 것이 더욱 아쉽고 또 해고회피 노력이 다 되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리해고 대상자의 문제를 보면 나름대로 회사에서 생산직의 경우에는 정리해고 기준

을 쪽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해당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합법에 의한 노조활동의 탄압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노동부장관은 짚어보셔야 합니다.

대우자동차 노조 측에서 85년에서 87년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분들이 34%, 93년에서 95년 활동가들이 39%가 해고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해고의 기준이 정말로 공정했느냐 하는 것을 장관께서는 검토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 측과 가능하면 협의를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정리해고 대상자 중에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22명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분명히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해고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15명, 원호대상자 등 많은 분들이 그 기준의 형식적인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위법 내지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결과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산곡성당 진입은 타당하다고 보시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산곡성당에 2월20일 오후 6시 20분경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7시면 저녁 미사시간입니다. 제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당의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때 일부 농성자들이 거기에 피해 있다가 미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성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미사 중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에는 나름대로 종교활동을 위한 평화스러운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공권력 투입의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종교기관에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부제가 폭행을 당하고 종교활동이 방해를 받고 그나마 피해 있던 근로자들이 강제로 연행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동부의 법률안을 심의할 때 존경하는 金文洙 위원님과 申溪輪 위원님께서

산곡성당에 피신해 있던 근로자에게 장관님께서 가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을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밝혀 주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희망센터는 나름대로 해고된 근로자를 위한 희망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5일부터 2001년2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사실상 대우차 취업지원센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대개편된 것이 이 희망센터입니다. 그런데 대우차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상담취업 187명, 창업 31명 해서 실제로 원하던 소기의 목적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희망센터가 해고된 근로자들의 아픔을 다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시는지 또 보다 높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동부의 실업대책을 보면서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2000년11월16일 동절기 실업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01년1월17일 정부종합 실업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01년2월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정부의 실업대책을 포함한 노동부의 실업대책이 소상히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월23일 보완실업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실업 문제는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증액해서 실업 문제만은 철저히 다루어줄 것을 촉구하고 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실업대책이 처음부터 좀 멀리보고 모든 것을 포괄해서 수립되지 못하고 세상에 2000년11월16일부터 2001년2월23일까지 불과 몇 달입니까? 약 석 달 사이에 네 번의 정부의 실업대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정부가 제대로 계획 하나라도 세울 수 있는 정부인지 아니면 그저 허겁지겁 하는 정부인지 저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2001년2월2일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할 시에는 1월17일 범정부 차원의 정부종합 실업 대책이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또 보완실업대책이라고 해서 특별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때까지도 덜 만들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특별실업대책을 세우라고 하시니까 또 거기에 뭔가 하는 듯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내놓은 것입니까?

노동부가 뭐하는 곳입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실업에 차근차근 대처하라고 촉구하고 또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 金文洙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업대책특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좋은 노력을 강구할 수 있을까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몇 달 사이에 네 번이나 뒤죽박죽이 되는 실업대책을 계속 내놓는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서는 오랫동안 학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근본은 보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실업대책에 있어서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조금조금 더 하느라고 그랬다고 하지만 적어도 1년 안에 세울 수 있는 계획은 그 전년도에 세우고, 적어도 석 달 사이에 네 번이나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실업대책을 보면 그 재원 대책이 급속하게 만들어져서 정보화촉진기금의 기금변경 410억, 고용보험기금의 기금변경 888억,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진흥기금 잔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대책도 구체적인 자료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라는 IT훈련을 해외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에 파견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월23일 발표된 대책에서 나왔는데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대상국가와 대상대학을 선정한 근거는 무엇이고 이것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청년층 실업대책이 너무 대졸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고졸 실업자에 대한 것은 오히려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고졸 실업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질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대졸 실업자의 경우에도 지금 대학에서 전공한 것 하고 그 이후의 취업지원훈련하고 어느 정도로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IT훈련 직종의 노동수요가 많다보니깐 그 분야의 훈련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문계열이나 어문계열, 농학계열, 법정계열 등 당초 전공이 다른 그분들이 한 6개월 동안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IT인력화하는 데에 적합한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전공과 직업훈련과 취업수요를 연계시키는 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全在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仁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委員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全在姬 위원께서 대우자동차와 관련하여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우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것인데 장관님! 1,750명 중에서 산재환자 22명이 포함된 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되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잘못되었습니다.

○朴仁相委員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4일 신문에 난 이후 25일에 회사가 철회한 것으로 아는데 철회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철회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朴仁相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자동차에 공권력 투입한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공권력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쇠파이프, 화염병, 신나, 돌 등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 쪽에서는 부평공장 안으로 출입 자체를 막고 있으니까 성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朴仁相委員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는 허용을 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런데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방화라든가 시설물 파괴의 우려가 있어서 사측이 아마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 다른 쪽에 얘기해서 전부 귀속되어버리면 노동부의 입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점은 분명히 노동부가 법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집회 중 2월24일 당시 공권력에 의해서 구속자가 11명, 연행자수가 144명, 부상자수가 3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동부 통계와 제 얘기가 틀립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맞습니다.

○**朴仁相委員** 틀립없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朴仁相委員**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가 번져나가면 금년도 노사문제도 불을 보듯 뻔하게 이것이 확산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정리하고 당한 분들이야 이미 생명선이 끊어진다는 어떤 절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달려드는 판인데 구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관대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가급적 구속이나 엄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仁相委員** 여기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지만 각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협상을 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대화로 풀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압에 의거한 노사문제 정리가 대우가 본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21일에 검찰이 집단이기주의와의 전쟁 선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단체이든간에 그 단체는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대우자동차사태를 놓고 공안적 시각에서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하면 노동부라든가 노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동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앞장서서 주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동안 대우문제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노동부가, 경인청장은 경인청장대로, 노사협력관은 노사협력관대로……

○**朴仁相委員** 여기 자료를 보아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 이상으로 뛰어야 됩니다. 지금 대우는 공안적 측면에서 대처하고 있지 노동적 측면에서 대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런데 그 자료도 지난 2월 25일, 일요일입니다만 우리 노동부직원이 출근해서 이종대 회장을 불러서 희망센터가 실질적인 성과, 괜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숙의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이 없습니다만 2월27일에 또 이종대 회장을 만나서 구조조정에 따르는 해직을 최소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라 그리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朴仁相委員**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쪽 입장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런 노력이 가지적으로 나타났을 적에 노사문제가 좀더 쉽게 풀리지 않겠나 싶은데……

○**勞動部長官 金浩鎭** 한 말씀만 보탠다면 제가 너무 가지적으로 나서면 또 현장에서의 노사의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朴仁相委員** 장관님!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관님께서 앞에 나서신다고 지금 가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역으로 나옵니다. 장관님이 나서서 잘 되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으니까 앞에 나서셔도 괜찮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런 점도 우려가 되고 해서 이번 토요일에도 어디 좀 들리려고 했더니……

○**朴仁相委員**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우자동차 체불에 문제가 있습니다. 2월19일 현재 체불규모가 임금 2개월분, 상여금 3개월분, 퇴직금 포함해서 총 1,307억원이 체불되어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맞습니다.

○**朴仁相委員** 그런데 체불임금청산계획서를 사측에 청구해서 노동부에서 해결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촉구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단에서 자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단의 자금지원은 노사가 회사의 자금

계획에 동의를 해야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서로……

○**朴仁相委員** 그런데 문제는 채권단의 시각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들의 퇴직금이라든가 인건비는 합의가 되건 안 되건간에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아납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리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기청산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채권단 측과 협의를 거쳐서 체불된 것만이라도 지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127억을 풀어서 생계비대부조치를 취했습니다.

○**朴仁相委員** 앞에서 실업대책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全在姬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9월 노동부가 노동분야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11대 중점과제로 잡은 것이 있지요? 노동부가 선정한 11대 중점과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및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문제,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휴일제도 개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모성보호관련제도 개선,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외국인력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시행,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운영혁신, 직업능력개발 3개년계획 수립, 노동외교 및 국제교류 다변화, 노동부문 남북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인데 지금 노동부가 2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이 노동개혁 11대 과제 중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거기에서 복수노조 또는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또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작년 10월23일에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기본법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사실상 11대 과제 중에서 8개 과제는 지금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모성보호문제라든가 외국인고용허가제문제 등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노사 이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법 제정할 경우에도 부처와의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노동부 자체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안 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委員** 사실 노정 합의사항을 근로기준법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개혁 과정에서 성공한 개혁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뒤로 미루어 버리느냐, 솔직히 말해서 서로 어려우니까 몇 년 더 미루어 보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모성보호법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장관이 손발 벗고 나섰어도 될듯 말듯한 별률을 어찌보면 팔짱 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임금인상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노총이 12%, 민주노총이 12.7%,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총이 내놓은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내놓은 금년도 임금인상의 퍼센트를 보면 앞으로의 노사관계가 어떻겠구나 하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계서는 임금인상률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노사 간의 갈등문제 즉 이러 이러한 격차가 생겼을 적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 갖고 계신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12.7%와 3.5%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경제가 어렵고 실업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서 임금을 너무 올리면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더 줄어든다는 그런 점을 이제는 노사도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또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멕시코가 94년에 임금동결에 대한 대타협을 했다는 사실도 감안하면서 지도를 하고 또 노사도 그 방향으로 성숙한 협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朴仁相委員**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산재예방기금하고 산재보상보험기금을 통합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담당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朴仁相委員** 그것은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나중에 全在姬 위원님 답변 줄 적에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장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지난 2월5일 KBS, MBC를 통해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朴仁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浩雄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일괄질의하는 것하고 일문일답하고 시간을 똑같이 책정한 것 같은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충질의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일문일답은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더 준다든지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규칙이 바뀌었는지 진행에 관해서……

○**委員長代理 申溪輪** 규칙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관해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까라는 제가 모두에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해서 1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일괄질의를 하시는 분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러니까 일문일답도 그냥 15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요?

○**朴仁相委員** 조금만 넣어주세요. 일문일답으로 15분을 하든 전문으로 15분을 하든 저야 관계없습니다마는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인노동청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인노동청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에 있어야지 왜 인천에 있느냐, 경인지방청에서 인천을 떼버리고 경기도청으로 하나를 분리를 해라.” 아마 이렇게 해서 노동부에 올라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노동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천청은 인천청대로 놔두고 경기도청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노동부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할 적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李浩雄위원님, 일단은 15분씩으로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또 金文洙 간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질의도 하시고 정책토론도 하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적어도 3월10일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환경노동위원회의 정책질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하루 더 소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규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15분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金文洙委員** 그렇게 하시고 정 부족하시면 회의를 하루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우자동차에 대해서는 全在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부평공장이 폐업을 할 것으로 들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저는 폐업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시설이 노후돼서 폐쇄할 그런 계획은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협의한 바도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산자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협의해 본 바도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협의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현장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방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부평지역 전체 또 인천지역…… 그 경인지역 일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과거에 새나라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자동차공업의 효시이고 인천지역 기계공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 또 한국에서 산업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재휴양 중인 노동자 22명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고발장이 나와 있습니다. 산재요양 중에 해고가 됐다 그래서 전국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 대우자동차노조위원장 김일섭, 대우자동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정문 이렇게 2월27일자로 고발장을 썼는데 들어본 적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들어 봤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에 산재요양 중에는 또 요양 이후에도 30일 지나지 않으면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불법입니다.

○**金文洙委員** 불법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조치를 취했습니다.

○**金文洙委員** 어떻게 되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래서 해고가 취소되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 사람들만큼 22명만 취소되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러니까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원칙으로 되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것이 22명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22명입니다.

○**金文洙委員**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성당에 난입했다, 또 사체를 곧봉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것은 정의평화위원회 자료에 이미 나와있고 지난주 경인지역 인천교구 전체 성당의 후보에 간지로서 이 성명서가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산곡동 천주교회 성전 난입 및 성직자 폭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상당한 폭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상자가 얼마나 하고 노동부에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노동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노동부에서 온 자료입니다. “대우자동차 관련 구속자 명단, 연행자수, 부상자수”인데 저한테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부상자가 83명이라고 했는데 노조원이 15명, 전경이 66명, 민간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이 노조원보다 4배 이상 많이 다쳤다고 해놓고 그 밑에다가는 “경찰청에 유선으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장관님, 이 사람들이 부상 당한 사람들 사진입니다. 떨어져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 눈알을 다쳐서 실명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여기 쇠골을 다친 사람이 있고 이빨이 이렇게 다 나간 사람, 그다음에 여기도 쇠골을 다친 사람이고 다리 부러져서 누워있는 사람, 여기 개인별 진단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참고로 한번 보시지요.

장관님은 저한테 서류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노조원이 15명 다치고 전경이 66명 다쳤다는 경찰청 유선 확인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노조원들이 다친 것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경찰청 유선에 의존하는 것 외에 노동부는 자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무래도 경찰에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확인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노동부 경인청도 나가 있고 또 감독관도 나가있고…… 그분들이 사법경찰관들이지요? 노동부는 현장에 안 나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나가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이런 것은 전혀 파악을 안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상자 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노조원은 15명이고 전경은 66명 다쳤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가우뚱해 보지 않겠습니까? 전경은 그래도 대오가 갖추어져 있고 훈련되어 있고, 대한민국 전투경찰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경이 4배 이상 많이 다치고 노조원은 조금밖에 안 다쳤습니다 하는 경찰의 보고를 노동부장관이 그대로 냅니까? “경찰 주장은 이러한데 우리 노동부가 파악할 때는 이런 것이고 노조 측이 주장하는 것은 몇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런 것 정도는 노동부의 기본 임무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공식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사실 인원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업무가 그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근로감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文洙委員** 저는 정말 유감스럽고, 장관님이 노동행정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노조사무실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서면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金文洙 위원 질의. 대우차 노조사무실 출입봉쇄가

적법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노동부 답변. 사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이후에 노조원 및 간부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음.” 이런 식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사측에만 확인해 가지고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답변을,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이런 답변서를 써서 보낼 수 있습니까? 노동부가 자체 내에서 이것을 조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날 이종대 회장을 불러 가지고 “노조사무실에 노조간부들 출입을 제한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네들은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경찰이 외곽을 경비하고 있는데 따르는 하나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경찰에다가 물어야 되겠지요? 사측이 안 막았다고 답 하면 경찰이 막는지, 안 막는지 물어보았어야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경찰이 여기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세 번째로 노동부가 사용자 아니라면 노동조합 측에도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점은 저희들이 직접 노조원들을, 노동조합 간부들을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金文洙委員**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접촉하는데 노동행정 책임자가 노조간부도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그 지역이 계엄상태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래서 직접 만나서 제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알아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사측이 제한을 하지 않고 경찰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굳이 노조한테 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金文洙委員** 장관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사측이 하지 않는다고 하고 경찰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사람들을 불신하고 했을 경우에 다시 노조한테 물어보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저는 불신하십니까? 저는 현장에 갔다 왔다고 그날 이야기했는데 들으셨지

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제가 질의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사측에 확인한 것 아닙니까?

○**金文洙委員** 그러면 국회의원 金文洙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논할 필요도 없고 사측의 답변을 들어보아서 아니면 그것으로 끝이지 노조에게 왜 물어보느냐 그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측이 출입을 금지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온 사방 다니면서 물어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全在姬委員** 장관님! 제가 볼 때 부상자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근로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하는 것은,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가서 봐야 그래도 근로자가 노동부에 대한 믿음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서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다는 호소가 국회까지 전달되는 차원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이나?” 하는 것을 물어보고 엄정하게 가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노동부가 직무를 소홀히 했고 또 그렇게 직무를 하시면 어떻게 노동자들이 장관님을 믿고, 노동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소홀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저희도 동의합니다.

노조사무실 출입은 원칙으로 허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종대 회장을 불러서 “사무실 출입을 제한했느냐?”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임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金文洙委員** 金浩鎭 장관은 산자부장관이 아니시지요? 노동부장관이세요, 산자부장관이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동부장관이지요.

○**金文洙委員** 노동부장관이면 사장 이야기만 듣지 말고 노조위원장 이야기도 들어보라는 것이 무

리한 요구입니까? 노조위원장 이야기 들으면 노동부장관 안 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동부장관이 물론 노조지도자라든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사측에서 허용한다니까 우리는 허용하는 것으로 믿고 한 것이지요.

○**金文洙委員** 왜 사측은 믿고 국회의원 말은 안 믿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국회의원 이야기를 믿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金文洙委員**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속기록 다시 볼까요?

“노조사무실이 봉쇄되어서 전 상근 노조간부들이 출입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적법하냐?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내가 그러는데 사장 이야기 들어보고 이렇게 답변서를 서면으로 보내놓고 ‘제한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은 경찰이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외곽을 지키고 있는 데 따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金文洙委員** 경찰이 막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엄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사실 확인을 해서……

○**金文洙委員** 노동부장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해 주셔야만 노사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완화 또는 수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장 이야기만 들어보고 노조 주장은 완전히 묵살하고 국회의원 이야기도 다 묵살해버리고, 부상자 숫자는 경찰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경찰은 66명 다치고 노조간부는 15명밖에 안 다쳤습니다.” 마치 노조가 경찰 폭행하여 경찰이 피해자이고 노조가 가해자가 되는 식의 답변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왔으니 노동부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저는 이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장관님이 지휘하고 있는 노동부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해도 뭐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좀 더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다음에 공안대책협의회는 소집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보내온 답변서에 의하면 2월7일 오후 4시, 정부중앙청사 1204호,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가셨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이날 논의결과를 보니까 대우자동차 동향 및 대응방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때 법무부장관도 오고 다 왔는데 이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공안대책협의회는 없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이후에 공안대책협의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기억을 합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2월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행자부에서 개괄적으로 사회안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金文洙委員** 2월7일 이 외에 공안대책협의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없었습니다.

○**金文洙委員** 제가 듣기로는 제가 계속 지적을 하니까 공안대책협의회 공문을 보내지 않고 전화로 연락해서 공안대책회의, 인천지역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없는 것으로 압니다.

○**金文洙委員** 이 부분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장관님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노동부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극도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균형있는 행정을 할 책임과 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측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사용자부가 아니고 경찰의 하수기관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다음은 李浩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浩雄委員** 李浩雄 위원입니다.

지금 대우자동차 문제가 정리되고 또 파업, 공권력 투입, 물리적 충돌, 주동자 검거·구속 이렇게 우리 사회 파업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대우자동차살리기 대책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고자 열심히 노사

또 채권단 전부 만나면서 뛰어다녀 보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노동부장관 이하 경인지방노동청장이나 북부사무소장,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왔지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입술 부르트면서 열심히 노력한 그 노고 자체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장관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점들은 우리 사회의 한계 그리고 현재의 노·사·정의 관계 속에서 노동부로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 한계 안에서라도 보다 더 노동부는 좀 더 근로자들 편에서 심정적으로도 또 사태판단에 있어서도 비중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달라 하는 충고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영과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우자동차를 죽게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느끼고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간에서는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자서전 제목에 빗대어서 ‘세계는 넓고 숨을 곳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세계는 넓지만 갈 곳은 없다’ 이런 정말 절박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3일, 늦기는 했습니다. 전직지원을 위한 희망센터 개소식에 장관님도 참석을 하시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희망센터가 이름 그대로 지금 대우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재취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을 위해서 전문컨설팅회사에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회사에 의뢰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전에 노동부에서는 퇴직자를 위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알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거기서 나온 성과나 결과물들이 이번 희망센터에 보탬이 되거나 활용이 될 소지는 없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직 연구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李浩雄委員**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한 육칠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언제 시작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금년 초에 주었기 때문에……

○**李浩雄委員** 필요할 때 꼭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희망센터도 가서 개소식하고 테이프 커팅하고 이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자리를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구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장관께서 신경을 쓰고 책임을 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인력수요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쪽으로도 배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인천시장부터 이중대 회장 등 말들은 많은데 실제로 조건들을 따져보면 전문적으로 기능을 습득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현실과 실제의 현실을 파악을 하셔서 가지고 생색만 내는 또 그냥 전시행정에 그치는 결과가 되어서는 더욱더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더욱더 실효성 있는 고용창출 대책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 상시적으로 이런 해고가 있기 전이라도 전직, 재취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의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 내 아니면 자회사 형태를 띠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채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채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채용할 근로자의 이직 전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李浩雄委員** 이미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수급하는 기업의 불법적 전용을 막기 위한 불

가피한 조치이겠지만 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인력을 위해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대우의 경우는 전문건설링 회사에 의뢰를 하지만 대우자동차 안에 앞으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대우자동차 안에다가 만들어서 해고가 되지 않는 지금 현재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직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李浩雄委員** 그렇다면 바로 채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법률 거기에 별도의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런 경우들은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취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해야 됩니다.

○**李浩雄委員** 그것을 시급히 시의에 맞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급조건을 부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가설기자재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제가질 의할 것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9월부터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설현장 가설기자재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가설기자재에 대한 특별단속이 언제부터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산업안전국장 송지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가설기자재에 대한 것은 작년에 산재 예방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작년 칠팔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8월에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받고 난 다음 구시월에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지난 9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제도가 도입이 되었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예, 그렇습니다.

○**李浩雄委員** 그 이후 작년까지 전혀 미검증제품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작년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됩니까?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위원님, 작년에 갑작스럽게 점검한 것이 아니고 98년·99년 상반기에도 연례적으로 이 가설기자재에 대한 점검은 있어왔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 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가설기자재 하나만 아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러면 92년 이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이후에 단속하고 적발했던 사실들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작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번 단속기간에 자진신고기간을 두어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검정기관인 한국건설가설협회는 1만본 당 20분의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중에서 16본 이상 기준치에 합격하지 못할 시에는 1만본 전부를 불합격 처리함으로 인해서 중소건설업체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더불어 시공 중인 공사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본 중에서 20본이라고 하면 1000분의 2, 0.2%인데 그 확률을 가지고 지금 합격이나, 불합격이나를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 기준 자체도 너무 잘못된 것 같고 이 때문에 기존에 유통되던 가설기자재들을 못쓰게 함으로써 건설자재 생산업체가 주 회원사인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불만과 의혹이 시중에 일고 있는데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며칠 전에 전문건설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문이 하나 와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1만본당 20분의 샘플을 무작위 추출해서 검사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1만본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외관검사를 다 했다고 합니다. 20분만 검사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다 외관검사를 했고 또 검사규정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KS A 3102규격, 이것은 공업진흥청에서 하는 계수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방법으로 1만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0개를 샘플링해서 검사한다는 기준에 의

해서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께서 이것을 전부 다 불합격해서 폐기처분시킨 것이 아니냐 하고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불합격업체에 대해서는 작년의 경우에 다 재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승복할 수 있게끔 이런 상황까지 설명을 하고 검사를 했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시다.

○李浩雄委員 어느 회사 몇 개를 어떻게 검사했고 조치결과는 어떠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 보고를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의혹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96년9월에 노동부 비영리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한국건설가설협회는 98년2월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에 노동부고시 제98-62호에 의해 그동안 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맞지요?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예.

○李浩雄委員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안전공단의 업무를 특별한 사유없이 사설기관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나 전국에 20여개의 성능검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자재 생산업체가 주 회원사인 한국건설가설협회 산하 가설기자재시험연구소에만 성능검사권한을 위탁한 것은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재직을 안 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해서만 보고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98년 당시의 건설가설재 부분에 대한 공단의 검사요원이 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건설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사한 사람들의 얘기를 추적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설공업협회, 그러니까 가설물을 만들어내고 유통해 내는 그 단체에 이런 경우에는 주는 사례도 있고……

○李浩雄委員 그런데 전국에 20여개나 되는 성능검사기관이 있는데 건설자재생산업체가 주 회원사인 한국건설가설협회 산하의 그 시험연구소에만 성능검사권한을 위탁했다는 것은…… 특혜가 개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위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건설가설협회에만 준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공단도 이 검사의 기능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李浩雄委員 혹시 거기 협회장으로 있는 분이 노동부출신 아십니까? 전관예우 차원에서 건설가설협회에 독점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여타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 후에 발생하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성능검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다 부여해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일정한 자격조건을 주어서 여러 가지 다른 성능검사기관에도 그런 자격을 줄 용의는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저희들이 이 검사물량을 보니까 1년에 약 23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공단과 건설가설협회가 맡고 있는 것으로……

○李浩雄委員 그것은 지금 건설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이것이 시행될 때만 해도 건설경기가 아주 좋을 때 아니었습니까?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예, 작년의 실적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浩雄委員 그러니까 작년 실적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그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따져볼 테니까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그다음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파이프 서포트 안전지지대를 보면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물량이 1,000만본 이상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이조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검사를 마쳤다면 ‘안’자 마크를 획득한 건설자재를 구입한다면 4조원 정도의 구입비가 새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경기 침체로 도산으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에게는 이 제도를 지금 바로 들이대고 적용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미검정기자재의 추방대책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바로 적용해서 현실을 무시해서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엮어진 데 또 밟는 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예.

○**李浩雄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다음은 朴赫圭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浩雄委員** 정회 전에 제가 보충질의 때 질의할 것이 더 있는데 보충질의시간이 허용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申溪輪** 예, 李浩雄 위원님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申溪輪**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朴赫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赫圭委員** 朴赫圭 위원입니다.

아까 李浩雄 위원께서 건설현장 가설재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건설현장 가설재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는데 각양각지의 건설업체로부터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강력한 원성과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장관께 금번 특별단속 실태와 개선책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2000년9월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하여 전국 건설업체에 미검정 건설자재의 보유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미검정 건설자재 보유량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宋 국장!

○**朴赫圭委員** 宋 국장이 그 당시에 계신 것은 아니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1월2일 왔습니다.

○**朴赫圭委員** 저는 아까 李浩雄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개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나무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없이 잘 들으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朴赫圭委員** ‘안’자 제품과 비‘안’자 제품의 기준치가 어떻게 다른 지 아세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기술상 지침으로 검정기준이 하나하나 제품마다 KS 규격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赫圭委員**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 아시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보통 파이프 서포트의 안전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적에는 좌골시험이라고 해서 양쪽을 눌러서 휘는 정도 하고, 외관 검사 하고, 안에 기포가 있는지 재료검사 하고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赫圭委員** 제가 아는 경우 외관두께가 2.2mm 정도, 내관두께가 2.3mm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비‘안’자 제품은 외관이 2mm, 내관이 2.1mm로서 차이가 0.1에서 0.2mm밖에 안 난다고 그러는데 맞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렇지만 좌골시험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영향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朴赫圭委員** 건설업체는 여지껏 만들어진 것을 사서 썼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용하던 것을 못 쓰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또 건설업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불합격된 미검정 건설자재를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값이 아까 李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삼사 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전문건설협회에서 저희에게 건의문 보내 온 것에는 1조에서 2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朴赫圭委員** 만약 이것을 버리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산재사고가 44% 정도 난다고 그랬는데 사실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것이지 그것이 약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건설공사에서의 사망사고만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공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설기자재입니다. 파이프 서포트도 있고 스켓폴드라고 바깥에 작업하도록 설치하는 비계도 있고 이런 것에서 사고나는 것이 44%가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

데 저도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유통해 온 수 많은 가설기자재들을 일시에 사용중단시키거나 폐기처분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데에 고민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하여튼 안전하면서도 유통되고 있는 것이 폐기처분 되지 않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朴赫圭委員** 그다음에 노동사무소에서 업체에 공문 보낸 적 있어요? 노동사무소에서 업체에 공문 보낼 수 있는 것인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저는 무슨 공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朴赫圭委員** 와서 봐요.

이런 것을 보내기 때문에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는 것이예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특히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된 때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확보를 위해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담당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그러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그 파이프 서포트는 외관상 극히 심하게 부식이 돼 있거나 근로자들의 안전에 유해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朴赫圭委員**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잘라 가지고 토막을 내서 폐기처분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근거서류로 내라는 얘기에요. 이 내용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런데 만약에 감독관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많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근로자들의 안전문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누구의 얘기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朴赫圭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식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0.1mm에서 0.2mm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약하면 몇 개를 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권고를 해야지 특정업체 것을 쓰게 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인정이라기보다도 아까 존경하는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실무자들이 보완책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렇다면 안전계수를 더 높이기 위한 개 쓰던 것을 두 개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약속드린 대로 하여간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赫圭委員** 국장이 전문건설협회에서 감사원장한테 진정서 보낸 그 내용을 보셨어요? 여기 상세히 있는데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朴赫圭委員** 이 내용을 다 읽어 드리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인데,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지금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그 생산된 것을 빌려주고 임대해주는 유통업체가 있는데 임대하는 업체는 조그마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赫圭委員** 한 3만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보호차원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신 것을 다시 잘 알아보셔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예,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朴赫圭委員**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하신 것이 아니고 자리가 바뀌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이것을 중고로만 팔아도 1조원이 된다는데 가뜰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위원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있었던 전에 어떤 국장이 되었던간에 건설재해 사망재해의 44%가 가설기자재에서 나고 그 가설기자재가 규격품이 아니거나 부실하다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그런 기업의 실정을 감안한다든지 또는 기왕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는 나름대로 보완책을 세우겠습니다.

○朴赫圭委員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1mm, 0.2mm 차이로 규격미달이라고 그러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할 것을 세 개 하고 세 개 할 것을 네 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1mm가 아니라 0.01mm까지도 한계 리미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몇mm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하는 것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赫圭委員 그러면 그 기준을 확실히 안 알아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 조사결과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기준미달이 아니고 쓸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시고……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 기준은 담당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로 ISO 기준이라든지 국제기준 또 일본의 검사규정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朴赫圭委員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申溪輪 간사, 劉容泰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金晟祚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晟祚委員 金晟祚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장관께서 인사말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장관님께서 우리 한국의 노동행정을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노동부 전체의 구조와 또 기능 작동이 잘못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우자동차노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나누어 갖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GM에게 대우를 넘기겠다는 그런 기획예산처

의 의지에 의해서 강제하고 되었지 않았느냐 그 강제되고되는 그 와중에서 해산하는 방법에도 아주 공세적이고 폭력적 진압위주의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그만하고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킨 복수노조 인정과 노조전임자 문제, 임금지급 5년유예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염려한 것은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조의 보호 그리고 노조활동 활성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한국통신계약직 노조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예, 말씀하십시오.

○金晟祚委員 거기에 보면 많은 조합원들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접수한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서울114인 경우에 어떤 사람은 포커스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해고기준이 업무실적 기준이라는 이름하에 해고를 당했다는 이런 주장 등 140여명의 억울함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비정규직 한국통신 해고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비정규직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들이 그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한 노조가 다른 노조에 비해서 비교적 건실한 그런 노조인데 많은 조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장관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업무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취업능력 개발 등 실업감소 및 고용안정에 적극노력, 이것이 작년도 추진실적의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우려해야 될 문제는 실업 문제이고 많은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취업능력개발 중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은 시혜적 정책이고 취업능력개발에 집중해봤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줄지 않으니까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투입과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일자리 창출에 작년보다 올해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일자리 창출 예산이 금년 실업대책에서 예산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 습니다. 그러나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신산 업 육성, 예를 들어서 IT산업이라든가 ET, 환경산 업이라든가 또는 미세기술산업 그리고 생물산업 등의 육성에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아주 역점을 두 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중소기업의 IT화를 금년 에 약 5,000개, 2003년까지 약 2만개를 IT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장관님, 그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 번 업무보고 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산하기관의 예산서를 예산확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 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제가 지금 분명히는 기억하 지 못했습니다마는 제출요구가 있었는데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金晟祚委員** 모든 정책은 예산과 인력배분에 그 효율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굉장히 중 요하므로 내년 예산을 승인하기 이전에 각 산하기 관에서 작성된 예상예산서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또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즉시 보내 달라고 그랬습 니다.

그 당시의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출하 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늦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산하기관의 예산서 작성에 관한 규 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 습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산하단체는 거의 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과 함께 금년도 업무계 획이 확정되는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된 데가 일부 있습니다. 되는 대로……

○**金晟祚委員** 실장님, 산하기관별로 예산서라는 것이 있지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金晟祚委員** 그것 언제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 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규정이

없을 리가 없겠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 까? 어떻게 산하단체의 예산서 작성 기한이 없다 는 말입니까? 없다면 만들어 넣어야 되는 것 아니 겠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확인해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없다면 만들어 주시고,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 작성이 안 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 는지 안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지, 언제 되었는지 왜 본 위원한테 제출 안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勞動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晟祚委員** 다음에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장 관님의 철학에 대해서 또 현실파악에 대해서 문제 점을 제시했었습니다.

작년 업무추진실적 중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 시를 위해서 추진을 했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추진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런데 추진하다가 왜 갑자기 중단 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갑 자기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을 중단했느냐 여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른바 3D업종의 인력 이……

○**金晟祚委員**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로 해야 된다 는데 뜻을 같이 합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런 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勞動部長官 金浩鎭**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노사간에 이해조정 도 필요하고 현재 저희 부처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고 중기협에서 그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해 조정이 잘 안 되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장관님,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자료1, 자료2 등 많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지방 기관 등에서도, 심지어 지방에서도 우리 동료위원

들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인물 비용만 해도 막대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비소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보다 더 형성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개인을 위해서, 특정한 기관의, 특정한 이미지를 위해서 노동부가 들러리를 섰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이것은 한국의 고용정책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것입니다.

○**金晟祚委員** 그렇다면 계속해야 하지 않았나 이것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당연히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金晟祚委員** 아니요, 장관님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계속 추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딱 말았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정부는 정책철학 면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에 집착해 있고……

○**金晟祚委員** 장관님, 잘 알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이런 집단이기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데는 정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겠노라는 강력한 의사표명이 있었고, 했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하는 것이지요. 지금 공청회도 하고 KBS 심야토론도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했지만 역시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또 이 개혁의 어려움입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면 갑자기 사회적 환경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고용허가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밀고 나가다가 어느날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손을 완전히 놓아버렸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완전히 놓은 것이 아니라……

○**金晟祚委員** 거의 느낄 수 없게……

○**勞動部長官 金浩鎭** 중소기업자들과 또 중기협 거기에서의 반발이 너무 세서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해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조정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지금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도

노사정 합의가 되어야 되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합의가 되지 않고는 입법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장관님의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나……

○**勞動部長官 金浩鎭** 철학과 신념이라는 것은 뚜렷하지만……

○**金晟祚委員** 현실이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저도 사실 참 힘겹습니다.

○**金晟祚委員** 그러나 그 현실의 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부는 줄기차게 경제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하면 좋고, 그렇게 책에다 설명되어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습니다.

○**金晟祚委員** 여러 가지 국제적 위상이나 등등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현실이, 그때 주장할 때 사측의 주장도 강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한 것은 누가 뭐래도 장관님께서 노동행정에 대한 철학이 또 국제 전체의 어떤 밸런스에 대한……

○**勞動部長官 金浩鎭** 철학은 변함이 없지만 집단이기주의의 벽에 부딪혀서 저희가 이해조정외의 냉각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계속 함으로써……

○**金晟祚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사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金晟祚 위원께 여쭙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金 위원님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소신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소신인지, 둘 중의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金晟祚委員** 제가 모두에 말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委員長 劉容泰**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요. 제도를 만들려다가 지금 중단되었는데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둘 중의 어떤 의견이신지 몰라서……

○**金晟祚委員** 아니지요, 현실과약, 예측, 분석 등을 완벽하게 했다면 처음부터 이것 실패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왜 분석이 안 됩니까? 그것 못한다 말입니까? 노동부에서 그것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많은 고급인력이 모여서 그것도 분석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아니 입장을 바꾼 것도 아니고 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또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해조정을 위해서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金晟祚委員** 합의하기 위해서 칩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칩거가 아니지요.

○**金晟祚委員** 그러면 움직이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晟祚委員**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철을 위해서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해온 실적, 보고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총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장관님 잘 모르시면 담당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鄭秉錫** 노동국장입니다.

○**金晟祚委員** 혹시 경북동부지역 경영자협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경북동부지역 경영자협회에서 창립대회를 한다고 초청장이 하나 왔습니다마는……

○**勞動部勞政局長 鄭秉錫**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金晟祚委員** 2000년 12월 13일자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경북동부지역 경영자협회의회라는 것은 받았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에 상근하시는 분이, 경북지역에서 지노위 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만들어서 경영자협회의회라는 것으로 법인을 허가받아 이름을 낼 때에는 경영자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대회를 한다고 인사장을 돌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영자협회를 노동부에서 허가해주는 이유는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노사와의 조화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시·도별로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성을 위해서 각 시·도에서 하나가 유지되도록 하고 유사단체가 설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노위 위원장을 지냈던 그분, 이름은 자료에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위해서 이러한 질서를 깨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鄭秉錫** 예, 확인하겠습니다.

○**金晟祚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吳世勳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世勳委員** 吳世勳 위원입니다.

먼저 복수노조 허용 유예에 따른 비정규직 노조 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金晟祚 위원과 본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이 본 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복수노조 허용이 2006년으로 5년간 유예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와 미조직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노조결성이 앞으로 5년 동안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안심사할 때 노동부의 이 법에 대한 시각은 저와 다른 점이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요컨대 현행 법제 아래에서도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충분히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을 듣고 그때 잠시 말씀을 나누는 적이 있는데 장관님,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조규약을 보고 합니다.

○**吳世勳委員** 예, 규약하고 단체협약하고……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吳世勳委員** 현재 결성된 노조의 규약상 전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현행법 아래에서도 비정규직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동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勞動部勞政局長 鄭秉錫** 노동국장입니다.

지금 그렇게 상세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吳世勳委員**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사업장 노조가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의 인식이 지금 현실적으로 저하고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지요?

전사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勞動部勞政局長 鄭秉錫** 지난번에 법안심의하실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가지고 저희가

그 실태를 조사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지금 다시 그것을 논쟁할 생각은 없고 여하튼 이번에 법 개정안을 낸 것이 비정규직근로자의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낸 것은 아니겠고 결과론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全在姬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권익 보호방안 그리고 노조결성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부가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勞働部勞政局長 鄭秉錫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노조의 규약이라든지 단체협약에 의한 조직대상, 비정규직의 포함 여부를 한번 죽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민주노총에서 조사한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결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吳世勳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비정규직 노조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지원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해서 다음 상임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둘째는 비정규직의 노조결성실적을 월별로 해서 매월 상임위원들에게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조결성을 원하는 비정규직의 사업장 실태를 월별로 파악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勞働部勞政局長 鄭秉錫 월별로 계속 현황파악이 될지……

○吳世勳委員 월별로 안 되면 분기별로라도……

○勞働部勞政局長 鄭秉錫 하여튼 최대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설립을 원하느냐 여부까지 파악하기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들이 규제가 대부분 풀어져 가지고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것이 설립신고할 때, 규약을 변경할 때만 신고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체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매월 파악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마

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吳世勳委員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노조결성을 시도하다가 좌절되면, 그 사업장이 시끌시끌하니까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빠짐없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働部勞政局長 鄭秉錫 예, 그런 사례는 저희가 수집하겠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다음에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의 3만5,300개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도감독 대상사업장 중 81.8%에 해당하는 2만8,890개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에 비해서 사법처리 업체수는 28.9%, 사법처리 사업자수는 42.5%가 증가한 수치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또 2000년도의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일체점검에서도 위반업체가 상당히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법조치 및 작업중지조치 사업장수가 전년 대비 무려 169.2%가 늘어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사업장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산업안전국장 송지태입니다.

위반 사업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사업장 지도감독업무, 기술지도업무를 대폭 강화한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기업경영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근로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의무규정이 좀 완화됐지요?

○勞働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완화 또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제가 알아보니 총 72건의 규제가 완화 내지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갑자기 너무 많이 풀어준 것이 아니냐 최근 3년간 정비된 건수치고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실무상 규제정비로 인해서 산재예방 업무에 어려움이냐 차질을 빚는 개정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제가 보니까 안전보건 관계자 선

임의무도 완화돼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되고 안전관리자를 최고 4명까지 선임할 수 있었던 것이 2명으로 축소된 이런 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도 임의화돼서 현실적으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예, 그렇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완책으로 특히 산업안전공단의 기술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기업의 안전관리를 대신 해주는 활동들을 하거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용자해 주는 활동을 하는데 안전공단의……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5인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해소했다고는 볼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래서 안전점검결과 및 재해 사고율 등을 감안해 볼 때 안전보건 의무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동의합니다.

○**吳世勳委員**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규제정비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대민 규제사항을 합법적,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취지이지, 이것이 무슨 기업주의 편의를 봐준다는가 사업하기 쉽게 해준다는가 그런 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중에 안전보건 관련비용의 투자효과 분석같은 것이 있나요?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사업주들의 인식을…… 이것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하는 만큼 재해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勞動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동의합니다.

○**吳世勳委員** 다음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징수 및 장려금 지급업무가 노동부에서 공단으로 이관됐는데 언제부터 공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고용총괄심의관 노민기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장애인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업무이관 전에 부담금 적용징수 및 장려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부 인력이 얼마였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다른 업무하고 겸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한 5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러면 업무이관 후 공단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공단은 저희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吳世勳委員**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현황에 근접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서 공단의 지방조직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 업무이관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그렇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런데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인력증원이 예정대로 이루어졌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작년 7월에 업무이관 방침이 확정되고 나서 곧바로 공단과 노동부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증원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사무소 신설이라든지 또 그때 마침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전문학교 신설 그런 등등을 합해서 한 14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정한 방침에 따라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吳世勳委員** 보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정부의 전반적인 인력증원 억제방침에 따라서 일단 2월 말까지는 증원하지 않는다는 비단 장애인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 내지 산하기관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다시 거론한다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吳世勳委員** 3월 이후에 거론하면 언제 증원될지는 아직 미정인데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러면 현재 공단의 어느 부서, 어느 인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글썽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지방의 지사인력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나……

○**吳世勳委員**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장애인 직업 상담하고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그럴 것 같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래서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취업확정 인원을 놓고 비교해 볼 때 2001년1월 현재 195명, 2월24일 현재 404명이 취업알선 실적인데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취업알선 업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산업안전공단의 사업대상도 확대됐고 그것과 관련한 직제개편과 인력보강도 현재 똑같은 이유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그렇습니다.

○**吳世勳委員**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 볼 때 노동부의 업무계획 수립하고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인수받는 쪽 사정을 감안하지도 않고 일단 업무만 인계시켜놨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생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노동부가 장애인 취업문제를 결과적으로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월 초에 논의를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영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다음에 정보통신 분야 실업자 재취업훈련기관 선발 훈련생 차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 분야 실업자 직업훈련이 온통 이십대에 집중되어서 정작 훈련이 필요한 삼십대 실직자의 경우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올라와서 관심을 갖고 있던 중이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본 결과

노동부가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착수할 것을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선발기준에 따라서 훈련지방생을 차별하는 훈련기관의 자의적 선발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사전적으로 또 사후적으로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지방노동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훈련기관을 상대로 지도점검하는 방법만 지금 하고 있지요?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런 것도 있고 실적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낸 훈련원에 대해서는 맞춤형훈련같은 경우에는 훈련비를 우대해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지난번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갔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맞춤형훈련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번째 방법은 현재 훈련기관이 실직자 훈련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훈련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렇습니다.

○**吳世勳委員** 이때 훈련계획서라는 것이 작성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훈련생 선발기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요?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吳世勳委員**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의무화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얼마 전에 본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킨,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안 29조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 시에 차등지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는 선발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훈련대상의 적정성 이런 것들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한다면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기준을 정할 때 참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世勳委員** 마지막으로 장애인직업전문학교 훈련공과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학습능력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보다 더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훈련공과를 다양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특히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직종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목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직업전문학교별로 훈련공과 내용을 보니까 몇 개 주목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컨대 녹음속기라든지 텔레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에게 교육시키면 취업에 적지 아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과목의 신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산업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IT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이 취업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행처럼 단순 사무자동화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나 웹디자인, 프로그래밍 이런 것 등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훈련직종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손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 산하에는 3개 직업전문학교가 운영 중에 있고 두 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 시각, 정신지체 유형별 장애 두 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분야에 대한 훈련직종 문제는 공과로 보면 아주 재래식 전통 공과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양장이라고 해서 옛날에 브라우스나 바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패션디자인이 있고 또 패턴디자인이라고 해서 아주 첨단 쪽인 고부가가치 직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와 관련한 각종 디자인 쪽은 물론이고 멀티미디어 또 전자기기 이런 등으로 전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과 속에서도 분야별 공과가 있지만 세분화해서 산업이 수요하는 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에 장애인을 채용해 주시오, 했을 때 필요한 인력을 달라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공과를 개편해 나가고 새로 신설하는 학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첨단 쪽으로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산하에 고용개발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장애유형별로 어떤 직종을 개발하면 좋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속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전맹장애인이 컴퓨터속기 자격증을 세 사람이나 따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世勳委員** 저는 일례를 들어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공과를 좀 확대해 달라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理事長 孫京鎬**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世勳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委員** 2001년도 종합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나와 있듯이 금년 1월달 고용동향이 실업자 수가 98만2,000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약 9만명 정도가 늘어났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노동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보면 2001년도 최고 실업자 수가 2월에 96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며 실업률도 4.4%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으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바로 노동부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을 우려하면서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업예산을 늘려주기까지



했는데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樂冀委員** 그런데 노동부가 이렇게 실업문제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 11월4일에 이어서 올해 1월17일, 2월23일 매달 한 번꼴로 실업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탕, 삼탕식 실업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동부는 실업을 전망할 때 민간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민간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도 참고하지만 우리는 주로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리고 실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최근 들어서 나빠지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노동부가 올해 연평균 실업률을 3.7%로 전망한 반면 금융연구원, 삼성·현대경제연구원은 연평균 실업률을 4.1%에서 4.4% 이상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가 실업률을 낮추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민간연구소의 발표에 조금만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님, 노동부의 실업전망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리 실업전망은 당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당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약 5.3%였습니다. 아직 불확실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이것이 4.3% 정도로 내려 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경제성장률이 1% 줄면 실업자가 약 육칠 만명 늘어납니다.

이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실업전망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급격한 경기변동에 상당히 신축성있게 대응한다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金樂冀委員**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야지요. 실업전망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그재그로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요즘 경기변동은 과거와 달라서 경기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가 아주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돌개바람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축성있게 대응한 것만으로도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인다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업전망이 노동부가 한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나온 고용동향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까, 통계청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리가 통계청의 자료도 참고하고 노동연구원 것과 민간연구소 것도 참고합니다.

○**金樂冀委員**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통계청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실적이 그렇습니다.

○**金樂冀委員** 어쨌든 제가 노동부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더라도 실업전망을 정확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수혜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수많은 실업대책이 발표되고 운영된 지 약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실업대책도 그동안의 양적인 실업대책에서 내실있는 질적인 실업대책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먼저 실업대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수혜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수혜율이 얼마나 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고용총괄심의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수혜율을 10.8%였습니다.

○**金樂冀委員** 10.8%라는 수혜율은 98년도 10.2%하고 비교해 볼 때 별로 진전된 수준이 아니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평균 수혜율이 30% 내지 40%인 것과 비교해 볼 때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부는 2002년까지 실업급여수혜율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자발적 실업자들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직사유별 실업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답변하실 수 없으시면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리고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 실업자는 현재는 급여를 안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장기실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실업자 중에서 임시직,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 일용직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실업급여 해당자가 되면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도 적은 포션이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해서 수혜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金樂冀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부의 실업대책을 보면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이후 임시직, 일용직이 취업증가세를 주도하였고 2001년1월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면 이런 질적인 측면은 고사하고 양적인 것마저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 범정부 차원에서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SOC사업을 금년에 아주 많이 확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성장산업 쪽도 새로 많이 육성하고 그다음에는 주택개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내역과 전체 임금노동자

의 50% 이상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樂冀委員**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7월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넘어선 비정규직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기본권 보호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난 국감 시는 물론 이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 이전에 사회전체의 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1일에는 사회 각계 인사 1만명의 시국선언이 있었는데 장관께서는 그 시국선언에 담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거기에서 노동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이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한 시국선언의 핵심내용은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비정규직 가운데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아주 취약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0월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셨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랬습니다. 10월4일입니다.

○**金樂冀委員** 그 보호대책을 보면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소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노동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금번 임시국회 때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문제는 노동부의 정책의 지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경제장관회의에

올렸습시다라는 산자부나 재경부 이런 쪽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난색을 많이 표명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간에 합의도 봐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金樂冀委員** 노사 간의 합의라고 하기 전에 적어도 노동부가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보호대책을 발표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정책을 잘 끌고 가서 법을 개정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金樂冀委員** 그리고 또 근로자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은 적용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사실입니다.

○**金樂冀委員** 그런데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이런 것들이 우리 근로기준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적용 제외시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다,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회의 생각으로는 노동부의 이런 방침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특수고용관계자의 노동권을 생각하는 그 뜻은 저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근로시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특수고용관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일·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도 좀더 수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樂冀委員** 어쨌든 그 발표 자체가 노동부의 약속이니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현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정규직의 50% 내지 7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등 차별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15일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 35명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현저히 차별을 받아 왔다면서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처우 조항을 들어서 약 14억원의 임금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별대우는 단기적으로 비용절감효과는 있겠지만 사회통합 및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기법 제5조 균등처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근절방안은 무엇인지 장관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문제는……

○**金樂冀委員**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樂冀委員** 그리고 지난 2월23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를 결의함에 따라서 법률개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 허용이 5년 유예될 경우 비정규직의 단결권이 현저히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 비정규직도 노조를 결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노조에서 규약 또는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권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설립신고를 할 경우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무작정 반려할 것이 아니라 조직대상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기존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단결권 보장을 위한 노동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단체협약에서 사실상 노조가입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선에서 행정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노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스스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金樂冀委員** 아까 全在姬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대우자동차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해서 대우자동차 사태에 관한 사항과 실업대책 예산배정에 관한 개선대책에 대한 것과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申溪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溪輪委員 이 자리에 경인청장님 나오셨나요?
- 勞動部長官 金浩鎭 경인청장은 안 나왔습니다.
- 申溪輪委員 대우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노동부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대우사태에 대해서 노동부가 목표로 설정해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무엇을 잘 했고, 무엇을 못했는가 이런 평가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의 업무가 대우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성공했다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실패했다라도 어떤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필요했고 무엇이 불필요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1월27일 노사가 구조조정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론 채권단에 제출할 합의문이기에 때문에 진정한 합의문과는 다소 다르지만 어쨌든 합의가 되었던 말이에요.

그 합의 중에서 특히 경영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고 여기 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12회에 걸쳐서 경영혁신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좋은 성공을 거두었다라면 좋은 사례가 될 뻔 했는데 실패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 경영혁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노동부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즉 자료를 갖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무엇을 보완하면 좋겠다든가 하는 것을 귀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의한 것 중에서 부속합의로 정부·채권단·노·사가 참석하는 4자기구 구성에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 4자기구는 구성이 안 되었나요?

- 勞動部長官 金浩鎭 안 되었습니다.
- 申溪輪委員 왜 안 되었지요?
-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은 역시 노사 양측의 이해가 대립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溪輪委員 물론 그랬겠지만 4자기구 구성이 왜 안 되었는지, 이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장이 걸림돌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은 노사협력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溪輪委員 경인청장이 나오셨으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것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과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 기구가 구성이 안 되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용자 측에서 거부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대우사태와 관련해서 노동부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勞動部勞使協力官 白日天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申溪輪委員 그리고 마지막 11차 경영혁신위원회를 한 날짜가 2월16일인데 이날 노조가 최종안을 제시했고 회사 측에서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전, 후해서 경인청장과 인천북부소장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이쪽 저쪽을 만나고 다닌 흔적이 여기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11차 경영혁신위원회에 노조 측 안과 회사 측 안이 나왔을 때 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는가 아니면 노사 양측에 무슨 지도를 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 유감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 문제는 제가 2월14일에 박윤배, 이목희 등을 만나서 대우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고 2월15일에 국회로 문성현 민주노동위원장을 불러서 타결이 되도록 마지막 지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 1월27일, 2월9일에 두 차례에 걸쳐 이종대 회장을 불러서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조정역할을 직접 제가 했습니다.

○申溪輪委員 2월14일에 인천북부소장이 이종대를 면담해서 노조를 설득하여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과 노동부 추진 1사1인 일자리나누기 사업과 희망센터 연계운영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있고 또 장관님께서 노력하신 것을 알겠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어떠한 안을 가지고 노사 양측에 대해서 지도했는가, 제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으로 볼 때 단순히 노동자, 사용자 양쪽을 불러서 너희들이 서로 잘 협력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제안했는데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사 양측의 주장을 병렬로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평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가 그런 역할을 한 흔적이 이 자료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북부소장, 경인청장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했는지? 만나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했다, 설득했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설득태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정확하게, 일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했느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주실 수 있나요?

○**勞働部長官 金浩鎭** 그 내용은 조금 민감해서.....

○**申溪輪委員** 민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노사협회가 중대한 난관에 봉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노동부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니까 그것을 꼭 주십시오. 이제 그런 것을 알려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서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지자료를 보니까 2월14일에 희망센터 연계운영방안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센터 운영회에 노조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지금의 노조 정서로는 현 단계에서 운영에 참여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申溪輪委員** 제가 노동자대표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꼭 보니까 노조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노동자집단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제가 제시한 안은 노동자 쪽에서 몇 사람, 종교인, 시민단체 등에서도 참여하면 희망센터가 좀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이종대 회장 측에 제시했습니다. 아마 종교인은 포함될 것입니다.

○**申溪輪委員** 이종대 씨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3인으로 제한했어요. 노동부의 경인지방노동청장, 지자체에서는 인천시 정무부시장, 대우차 회장 이렇게 3인으로 제한했는데 왜 이렇게 제한했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내에 정부정책을 그나마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노동조합 사람들과 또는 노동자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도 있다는 것을 늘 선전해 주고 말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 해주십시오.

또 꼭 3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덕망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정부와 더불어서 비판하고 협력하고 이 사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 6개월 한시적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육능력이 있는 노동조합 사람들에게 당신, 노동조합 사람들을 위해서 순번제로 일하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의 내용 중 소요예산을 보니까 추정액이 총 458억원입니다. 이 중 약 44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운영비 18억원 정도를 대우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다 대주면서 왜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제안을 못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법정정부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왜 참여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행정적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 자기들도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꼭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이원화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적극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재고하셔서 좀더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위원회제도와 자문위원회제도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 일요일에 얘기했습니다.

○申溪輪委員 그런데 이 희망센터의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누가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동부와 대우회사, 인천시 3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申溪輪委員 3자 공동으로 하지만 이 문제는 노동부가 제일 중심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申溪輪委員 회사가 중심이 되는데 자료를 보면 예산이 458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컨설팅 용역비를 포함한 희망센터 운영비 18억원은 대우차 부담, 단 사무실은 인천시가 제공한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것이 사무실 하나가 있네요.

이런데도 노동부가 계속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대우차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는 답변은 참으로 제가 듣기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노동부가 이 사업의 주인이 아닙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申溪輪委員 우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440억을 내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중간 중간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 돕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문제 중에서 지난번에 복수노조 금지,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를 말하자면 5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일을 통해서 보면 국제적으로 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국제적으로 ILO나 OECD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것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단결권문제나 조합원 자격의 범위문제, 우리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실업자를 포함하는 문제라든가…… 노조전임자 문제는 5년간 유예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되었지요?

그런 문제라든가 복수노조 불인정하는 문제 이

것은 새로운 문제가 됐습니다. 기타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노동부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겠나,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준비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활동들도 임하시고 우리의 입장을 갖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지난 22일, 23일 파리에서 OECD ELSAC회의에 노동부 직원을 보내서 복수노조 유예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노사정 대표가 ELSAC이라든가 ILO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무슨 제소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답변할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용된다면 6월에 ILO 총회에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노동외교를 펼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9일 그 합의가 있다가 나서 외신보도자료를 저희 노동부에서 만들어서 노사정위원회 이름으로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申溪輪委員 물론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미해결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노동부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나, 몇 년간 유예했으니까 몇 년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노동부 나름대로의 확실한 전망과 비전을 갖고 설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적으로 그 문제를 정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문제들을 잘 아실테니까 장관님께서 지시하셔서 정책연구를 좀 하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ILO 협약과 관련해서도 조금 미진한데 이것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특히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 ILO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반성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14대 국회 때도 지적을 했던……

아동노동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결사의 자유문제는 가난한 나라나 부자인 나라나, 무슨 민주주의가 된 나라나 아닌 나라나 모두를 막론하고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속합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는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고, 미국 노동부장관도 이것에 대해서 무역과 연계시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없이 강제노동금지 부분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형법상의 제반…… 뭐 징역형이면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정부 부처끼리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勞働部長官 金浩鎭**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ILO 협약 비준한 것이 11개인데 금년에 추가로 7개를 비준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申溪輪委員** 그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것은 강제노동금지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비준조항에 속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가입을 못하는지를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상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를 갖고 있는 나라는 가입이 안 되겠지요. 기타 몇 가지 형법상 점검해야 될 것들을 정부 부처끼리 논의해서 언제까지 없애겠다는 정책방향을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노동외교도 실리있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내실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남북한 인력교류를 위한 북한 인력 및 노동제도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용역을 작년 말에 3개월 동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결과가 나와 있나요?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 연구결과가 2월 중에 나왔습니다. 작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해가지고 반달 동안 조금 보완하도록 해서 2월달에 나왔는데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溪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계속해서 朴洋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洋洙委員** 朴洋洙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선서한 지가 보름 밖에 안 됩니다. 그

리고 상임위 활동은 1주일인데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통해서 장관님 답변이라든가 여러 간부께서 답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고 예산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화호 지역과 반월공단을 갖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직원 모두가 한 3일 동안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노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5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 朴仁相 위원님이나 申溪輪 위원님, 저쪽의 卞在姬 위원님같은 분은 노동의 전문가 이십니다. 그리고 金樂翼 위원님이나 金文洙 위원님은 노동현장에서 운동을 하신 분들이고 해서 감히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노동문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장관님께서 2000년대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어떤 비전이라든가 또 지금 보니까 경제나 노동은 이제 상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0년대에는 사실 밥을 먹는 것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천국을 찾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는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급급했고, 70년대에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돼서 병들고 또 그로 인해서 환경도 병들었습니다.

어제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에코-2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80년대, 90년대에 이미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1992년도 환경장관회의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 다 망가뜨리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서야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80년대에는 노동운동이 바로 권력투쟁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金文洙 위원님이나 申溪輪 위원님들이 정말 옥고를 치르면서도 민주화 과정에서, 바로 노동운동이 우리 삶의 생활의 터전을 찾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90년대에는 우리 노동자들의 정말로 권익을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제는 2000년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장관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마는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저도 늘 껴있었습니다. 필요없는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도 곤혹스럽고…… 사실은 자료요청이 어떤 과시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즉흥적으로 조금 했는데 반월공단, 반월 특수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다른 것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이 제가 아침에 만들어 온 것인데 속기록에 등재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철학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5대 때 속기록을 보니까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해자 점유율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때 답변을 보니까 산재예방대책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노동부가 이처럼 예방대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마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라기 보다도 간단하게 장관님한테 소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부가 역점을 두어야 되는 사업으로는 역시 노사관계의 정착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상생의 관계를 정착시키자 이런 점에서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달리 말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그런 노사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다음에 지금은 지식혁명 시대이니까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는 노사관계, 그래서 근로자의 직업경쟁력을 키워주는 그런 노동정책에다 역점을 두겠다, 그를 통해서 근로자가 자기 실현을 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또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니까 노사관계도 기업의 경쟁력을 생각하는 방향

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니까 노사관계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겠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합의적으로 푸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은 열린 사회이니까 열린 경영을 통해서만 노사가 서로간에 작업장 레벨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흥미를 터놓고 참여하는 참여지향의 노사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노동정책의 또 하나의 중심은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문제입니다. 역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일자리도 보람된 일자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정책, 적극적 실업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임기응변적인 실업정책이나 임시방편적인 고용정책이 아니라 나라 경제의 발전도 생각하고 지식정보 강국도 생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고용안정도 하는, 개인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을 두루 망라하는 이런 거시적인 입장에서 고용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존중, 생명존중입니다. 우리가 산업안전 문제, 보건문제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명존중의 철학을 가지고서 산업안전정책을 추진하자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남녀평등 시대입니다. 고용평등의 이상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인 고용평등 정책을 추진하자, 여성보호의 단계를 넘어서서 모성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점과 여성의 무한한 근로잠재력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용하면서 또 그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참고로 제가 그러한 생각을 담아서 최근에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朴 위원님께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전 위원들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이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 위원들께서 미흡한 면에 대한 보충질의의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아까 쏘 위원께서 일괄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全在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대우차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공권력이 투입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申溪輪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대우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질의가 나올 줄 알고 우리 노동부가 한 일지를 다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장황하게 읽고 앉아 있으면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월15일까지도 국회에서 문성현 위원장을 불러서 했고 또 이종대 회장도 몇 차례 만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리해고를 최소로 줄이고 가급적이면 노조가 주장하는 안과 회사의 입장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 대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경제정책이랄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대우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경제부처의 입장까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사측은 사측 대로 해고회피 노력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대 회장을 만났을 때도 자기가 2월15일 김일섭 위원장에게 일종의 최후통첩을 했을 때도 자기가 제시한 안, 그 400명의 무급휴직을 통해서 해고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정리해고기준이 노조원들이라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

정리해고기준이 노조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된다 하는 것은 첫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 최근 3년 간의 인사고과, 여러 가지의 상벌이라든가 부양가족 이런 기준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750명 중에서 노조대 의원은 전체 91명 중에 21명, 상임집행간부는 전체 35명 중에 10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재요양자가 포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노동부가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즉각 조치를 해서 2월24일 다시 원직으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해고를 취소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경찰의 산곡성당 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이 산곡성당에 진입해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투입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찰이 근로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망센터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센터는 대우 안에서 취업알선 그런 것을 하다가 희망센터라 해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해직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훈련을 시키자는 취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우가 적극 나서고 노동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제가 개원식에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는 25일 제가 이종대 회장을 불러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전시 식으로 하지 말라, 제가 그때 “희망이 근로자의 가슴에 떠오르는 식으로 희망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되면 대우도 희망이 있고 이종대 회장 개인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습니다.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인청장보고도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희망센터에다가 당신의 사활을 걸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각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1월3일 52개 기업 퇴출발표가 있었고 곧 이어서 실업대책을 수립해서 16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17일 종합실업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종합실업대책은 범정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업이 10월 한 때 76만명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부 어느 부처도 종합실업대책의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을 때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실업대책비는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실업대책안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11월3일 퇴출기업이 발표되자 11월16일 그래도 나름대로 실업대책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오르고, 한국 경기가 그 영향을 받아서 위축이 되고,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실업이 늘고, 유가의 영향을 받으면 아무래도 구조조정도 좀 더 심하게 되고 이런 사정으로 1월17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1월17일에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1월 초 경제장관회의 할 적에 종합 실업대책을 노동부가 만들겠다고 자청해서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처럼 경기 순환주기가 2년이다, 3년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코스닥과 나스닥이 신들린 것처럼 춤을 추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월23일 수정·보완책을 만들었습니다. 수정·보완책을 만든 것은 신규졸업생들 취업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취업문이 갑자기 좁아지고, 사오십대에 대한 새로운 실업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 자꾸 바꾸느냐, 왜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느냐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바람이 자꾸 불 때는 풍향을 제대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업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는 상황에 신속성 있게 아주 탄력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한다고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사업별 예산내역은 너무 장황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在姬委員** 예, 다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IT 교육을 위한 해외파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IT 해외파견사업은 부처로 따지면 정통부의 소관입니다. 정통부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비의 50%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정통부장관 이야기는 미국도 가게 되고, 일본도 가게 되고, 인도도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취업을 해도 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훈련시켜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일종의 두뇌유출이라고 할까, 인력유출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국회 조찬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지고 한국의 IT산업

이 외국에 진출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중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고졸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실업자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문이 역시 대학졸업자이고 두 번째가 15세에서 약 20세까지 되는 그런 계층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문대 졸업생들은 98%가 취업이 됩니다. 금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전문대 졸업생이 78%, 대학졸업생이 53%인데 고졸의 경우는 크게 지금 실업자를 우려할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진학이라든가……

○**全在姬委員** 장관님, 중요하지 않아서 숫자도 파악을 안 하셨나 보군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제가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도 하도 질의를 많이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IT분야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도 전문가가 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대학전공과 취업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학전공자가 전공분야에 취업하는 비율은 95년도 경우는 73%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63%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전공자가 전공분야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교육개혁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갭을 보완하는 것이 노동부의 직업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직업전문학교와 인력대학의 커리큘럼을 이런 인력시장의 수요문제와 결부시켜서 전문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많이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실업문제는 교육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훈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졸인 경우는 2001년도 전망이 총 졸업자수가 73만5,000명인데 이 중에서 대개 진학이 49만5,000명이 되고 군입대가 조금 되고 취업도 되고 해서 미취업이 약 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졸자는 저희 노동부에서는 이 IT 분야의 인력부족이 금년의 경우 약 3만5,000명이고 2005년

까지는 약 14만명 정도가 되는데 직종전환훈련 IT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IT분야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이 사람들에게 보람있는 일자리도 마련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사람은 청소년인턴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약 2만9,00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졸 졸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全在姬委員**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답변받은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있고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사실은 준비된 질의를 소화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하세요.

○**朴仁相委員** 다음이 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산재예방기금하고 보상보험통합관리문제하고 아까 질의한 위장산재환자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있고 경인지방노동청 분할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알겠습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우자동차에 대해 장관님, 경인청장님, 북부지방사무소장님, 노사협력관이 노력하신 일지는 제가 정밀하게 보아서 저도 그 노력에 대해서는 아까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사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줄다리기와 같은 것이고 거의 막바지에 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6일까지 휴무로 해놓았으면 열두 차례 했더라도 2월19일 공권력 투입하기 전에 3월6일까지는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깐 그래도 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더 노사협상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라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해고회피 노력을 회사가 다 했다고 회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노사가 의

견차이가 덜했으면 더 좁혀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언젠가 대우자동차에서는 5년간 고용을 전부 보장하겠다고 이런 것을 노사가 합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지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5년간 고용보장이라고 하는 노사합의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원칙없이 그냥 노사합의 되는대로 지켜보는 관망적인 자세보다는 정말 빨리 경영을 안정시켜서 일터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노동부의 판단이 전체가 되는 계획과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리해고기준이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전체 대의원 중에 21명, 생산직간부 중에 10명이 1,750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지금 제가 생산직의 해고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해고대상자 기준이 인사고과 플러스 25점, 근태 플러스 30점, 포상 플러스 10점, 징계 마이너스 10점, 근속기간 플러스 10점, 부양가족 플러스 10점, 장애인 플러스 5점, 보훈대상 플러스 1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을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 노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5년과 87년에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한 사람이 34%가 포함이 되어있고 93년과 95년에 입사한 활동가들이 39%가 포함되어서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가들이 많이 포함이 됴므로 해서 앞으로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한다는 노조 측의 얘기를 한 번 점검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추후 점검하시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산재요양자가 22명이나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 중재에 뭔가 구멍이 뚫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곡성당의 공권력 진입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 성당에 공권력이 진입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노동조합 간부들이 거기를 거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곡성당같은 종교기관에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장관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성당에서는 그렇게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수습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발표만을 가지고 장관님이 여기서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너무나 무모하게 너무나 사려없이 투입되어서 정부와 종교기관 간의 불화도 일어나고 민심도 동요되고 근로자들도 상처를 입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관님, 앞으로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센터는 장관님 말씀대로 희망센터가 되도록 저도 바라고 또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업대책, 제가 장관님 하신 것 여기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보완대책이고 이것이 1월17일 대책입니다. 1월17일 대책에 참여한 부처가 17개 부처입니다. 그리고 2월23일에 참여한 부처가 6개 부처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OECD에 가입되어 있지요? 수출이 세계 몇 위 국가입니까? 그런 국가에서 이 17개 부처가 참여해서 낸 실업대책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또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36일 내지 37일, 딱 한 달만에 정부대책에 뭐가 빠졌다 이것 빨리 더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도대체 정신있는 정부가 하는 것이냐, 또 이것 만드시고 2월 2일 대통령께 업무보고하셨어요. 노동부 업무보고 기준으로 하면 23일만에 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실업자군별로 대책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실업자군을 특성화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IT가 좀 보완된 것이 있고 채용이 좀더 투입된 것이 있고 인원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도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천천히 가고 꼬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문체를 푸는 첩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분함과 그다음에 어렵더라도 바로 가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을 저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일이 제가 장관님 하고 논란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은 반복하지 않으시고 보완하실 것은 보완해달라고 하는 부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IT교육 해외파견 사업은 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는 것을 저도 아는데 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업대책의 일환인 만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는데 현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장관님 모르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은 노동부에서 선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부에서 하는데 그 기준은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全在姬委員** 그러니까 장관님, 실업의 총괄부서는 노동부가 맞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사실 실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하고 정보통신부에서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하고…… 행자부에서 공공근로 합니다.

○**全在姬委員** 저도 공공근로 하다가 여기 국회의원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부가 실업에 관한 총괄부서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총괄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검회의를 매달 차관 주제로 합니다.

○**全在姬委員**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큰 아이템으로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노동부 나름의 어떤 보완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이러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실무국장은 아는 것 같은데 장관님은 그냥 둘러대시려고 그러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국장이 답변하세요.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고용총괄심의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언어, 영어나 일본어가 일정한 수준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든가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이 주관이 되어서 일종의 공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중에 누구든지 전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일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말 그대로 교육부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카네기멜론 대학같은 경우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발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의 심화교육을 위해서 해외훈련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인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삼성멀티캠퍼스라든가 LG소프트스쿨 또 한국능률협회 등 국내에 있는 31개 기관에서 1개월 내지 6개월 과정으로 하는 것은 심화교육이 아니고 일반 대졸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인도에 있는 대학에 1,000명을 선발해서 보내는 부분은 심화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야만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도 그 실업대책훈련의 포함대상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지 이런 것이 파악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다음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勞動部雇傭總括審議官 盧民基** 예, 알겠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 고졸 실업자가 지금 8만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인턴제 2만 9,000명 중에는 대졸자도 있고 고졸자도 있지요? 그중에서 고졸자는 몇 명입니까?

○**勞動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27%입니다.

○**全在姬委員** 27%면 대충해서 9,00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러면 7만명 정도가 남지요? 7만명이 남는데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IT훈련을 집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IT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IT훈련을 받을 수 없는 적성을 가진 사람이나 또 기초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만명이라고 하는 것을 수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졸자에 비해서는 열외계층입니다. 열외계층이기 때문에 그 8만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좀더 파악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공분야는 일치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제가 지금 넘어가고 새로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일하던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부가 어느 부처보다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준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미흡하고 실제

로 준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서 보류된 것은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全在姬委員** 앞으로 그 법을 보완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보완해야지요.

○**全在姬委員** 그래서 법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아까 吳世勳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申溪輪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중·장년층이 직업훈련소에서 거절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문제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중·장년층의 훈련 참여자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중·장년층에게 할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하셔서, 즉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다음번 국회 때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에서는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은 얼마나 달성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분석보고서가 나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안 나왔지만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나 다른 것을 보면 금년에도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비정규직하고 비정형직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비정규직과 비정형직은 용어의 차이 대상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全在姬委員** 좋습니다. 장관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全在姬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또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시키는 법안을 정말로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럴 때 가장 가슴에 걸리는 것이 비정규직의 문제라서 4월 국회 때까지는 노동부가 특단의 대책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면서 대상은 똑같고 말만 다르다면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동경제학회의 실태조사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명백한 개념이 없어 최근에는 50%를 상회하는 종사상 지위별 분류의 임시·일용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용어도 입이 필요하다.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문구가 정상적 혹은 바람직한 고용형태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인 고용형태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여 정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로 회귀하여야 할 것이라는 가치 판단을 내포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용어보다는 정형 및 비정형근로자라고 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치중립적이라서 비정형근로자라는 말을 쓰십니까?

○**노동部長官 金浩鎭** 그것을 가치중립적이라고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정형직이다 한시직이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 뭉뚱그려서 우리나라에는 상용직이 아닌 경우를 지금 현재 비정형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근로자가 정규근로자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60% 전후 되는 수준의 근로조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 정규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실태를 노동부가 알고 그 아픔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가치중립적인 용어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 꿈을 반영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지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서 비정형직이라고 굳이 쓰시는 것은 옛날에 노동자라는 말을 쓰면 북한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이상하다 그래서 근로자라는 말을 쓰자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하면 노동부가 이 사람들의 아픔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용어보다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部長官 金浩鎭** 예.

○**全在姬委員** 그다음에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 산업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관님 아까 朴洋洙 위원님 질의에 생명을 존중하는 노동철학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보십시오.

한국산업안전학회가 2000년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00개 사업장을 조사했습니다. 산재발생 재해율을 보면 정규직근로자는 1.16%, 비정규직은 1.24%, 정규직근로자의 사망만인율이 1.18%, 비정규직의 사망만인율은 3.09%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중 기계·기구사용법의 숙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23%, 이 가운데 직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63%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근로자가 직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되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계·기구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46%에 불과합니다. 안전보건 교육 실시 유무와 안전수칙 준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이 없다고 응답한 비정규직근로자가 289명 중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비정규직근로자가 252명으로 80.5%를 차지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기건강검진 여부를 보면 51%가 받았다고 대답하고 49%는 실시하지만 받아보지 못했거나 실시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어서 의료복지 혜택도 지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관님! 비정규직근로자는 생명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한국산업안전학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해서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에 언급된 향후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部産業安全局長 宋智泰** 산업안전국장 송지태입니다.

존경하는 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전공단과 같

이 이 부분에 대한 용역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이 용역사업을 발주했고 제가 그 관련 담당사무관과 얘기해 보니까 이 연구의 범위라든지 접근방법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이 용역보고를 종결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을 보고받지 못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공단과 같이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全在姬委員** 제가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李浩雄 위원님께서 태백지사 위장산재사고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까?

○**李浩雄委員** 답변을 서면으로……

○**全在姬委員** 서면으로 답변 받으실 것입니까? 저는 답변 받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에 서시지요.

2000년9월부터 2000년12월 중순까지 서울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특별수사반에서 보험사기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해서 공단의 태백지사 직원 3명이 불구속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공단이 조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그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완결되어서 20명이 구속되었고 13명이 불구속기소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3명에 대해서는 즉각 직위해제조치를 했다가 최근 파면 내지 해임조치를 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직위해제조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징계를 내릴 생각입니다.

○**全在姬委員** 이것이 95년부터 2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B개발의 경우에는 95년부터 99년까지 위장사고가 있었고 K건설의 경우에는 96년부터 위장사고가 있었습니다. B개발과 K건설 모두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재사건을 위장하였습니다. 98년부터 두 번에 걸쳐 공단이 감사하셨지요?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그렇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런데 왜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가 수사했습니

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수사결과 알 수 있듯이 이번 보험사고는 근로자와 사용자, 브로커가 공모해서 일단 위장사고로 만들어서 보험료를 타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모한 사실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감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급여를 착오로 과다·과소하게 지급한 사실이랄지 민원서류기한을 오래 지체했다든지 급여정수결정을 누락한 사실 등등 일선업무에 주력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폐되어 있는 사실은 감사에서 빠졌습니다.

○**全在姬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속수무책입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월23일에 손해보험협회와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 있어서도 이런 사기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직화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보험회사도 역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것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 정보를 저쪽에 주고 저쪽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이런 일들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의 운영·관리를 좀더 강화해서 현지사정을 파악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수시수시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全在姬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공단직원의 기소 사실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공단직원들이 기소된 사실을 놓고 다음 번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다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의 문제점 중 또 하나가 무엇이나 하면 이것이 또 비정규직근로자와 얽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람들 중에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勤勞福祉公團理事長 房極允** 없습니다.

○**全在姬委員** 제가 노동부에서 공단을 감사한 결과 나온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쭉 보니까 거기에 비정규직직원 운영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지난번 국정감

사에서 지적한 것은 고용을 지원하거나 고용촉진 사업, 취업알선 등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직종개발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합직종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개발원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현실과 연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劉容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서 제가 잘 몰라서 참고삼아 묻는 것인데 대학졸업자 중에서 자기 전공분야에 취업하는 취업률이 73%였는데 63%로 떨어졌다는 말씀 맞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委員長 劉容泰** 그래서 자기 전공을 찾아서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육개혁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전공분야에 취업이 안 되면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기 본래의 전공이 아닌 직종에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전반적인 직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IT 직종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주로 신산업분야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그러면 지금까지 대학졸업자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기 전공이 아닌 타 전공으로 취업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勞動部能力開發審議官 朴龍雄** 능력개발심의관입니다.

그 통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실업자훈련은 보완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훈련을 몇 개월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고 다만 훈련을 받으면 연관분야에 취업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문과를 졸업한 학생이 IT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이 당장 되기는 어렵고 컴퓨터를 배우면 취업이 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훈련이 어떤 보완기능을 하는 것이고 다만 IT분야는 이과나 공대를 졸업해서 기초실력은 있지만 자기 경력, 학력에 조금만 보완하면 취업이 용이해 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담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무조건 아이টে임을 갖는다고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경력, 학력,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유사한 과정에 안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容泰** 됐습니다. 들어 가세요.

아까 대학에서 자기의 전공하고 관련이 없는 말하자면 전공으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을 취업훈련을 시켜서 타직종에 취업시킨다 하는 것이 전공과 관련된 미취업자를 구제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국장의 답변은 상당히 위험한…… 지금 만약에 직업능력교육이나 또 다른 어떤 직업훈련계획에 이런 부분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방향 자체가 크게 잘못 잡힐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이 아닌 사람이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타직종으로 취업한 실적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아야 아까 장관께서 말씀한 그 대책이 향후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는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 받으실 때 全在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金文洙委員**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실업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요즘에 약해졌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는 실업대책내각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실업대책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뒤로 국무총리가 한다고 그러다가 왔다갔다 했는데 범정부적으로 볼 때 실업대책과 관련된 기구는 가동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우선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렇게 따지면 국무회의가 다 해당되니까 실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작년까지는 총리 주관으로 실업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총리께서 하셨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金文洙委員** 올해 2001년 들어와서 없어졌습니까, 언제 없어졌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것을 금년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없어진 것입니까? 있기는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것입니까?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현재 총리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체는 살아 있는데 총리실에서는 현재 인적자원개발회의, 사회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이렇게 운영되니까 이것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전체 실업대책을 점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총리령으로 실업대책특위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는 그 총리령있지요? 그것을 하나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실업대책을 하라는 총리의 말씀 또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 있습니까?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그것이……

○金文洙委員 그것을 말씀으로요?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말씀으로 하시고 지시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金文洙委員 지시는 없는데, 말씀으로 총리령이 없어졌나요?

○勞働部雇傭政策室長 金在英 일단은 현재 4개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金文洙委員 4개가 운영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고용정책실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4개팀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총리령에 있던 내용 중에서 4개팀별로 각각 할 수 있는 사항은 그쪽에서 하도록 업무지시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것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팀장이 있는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쪽에서 나온 바는 없고 곧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하여튼 지금 나온 것은 없는데……

○勞働部企劃管理室長 文亨男 그 령을 고치고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업무지시는 나왔습니다.

○金文洙委員 그것과 관련된 문건을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상당히 열의가 식었다고 할까요, 관심도가 식었다고 할까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제 조금 잊어먹을만한데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뭘

가 분명한 지휘체계 또는 담당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주로 노동부장관이 주무장관처럼 활동을 해왔고 또 실업정책이 확대되면서 사실 노동부 자체의 기구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인력은행이라든지 고용보험관계든지 고용안정센터든지 여러 가지 기구도 많이 넓어지고 다른 부처와 달리 부서의 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총리하고의 이 실업대책하고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재정부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합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실업부분에 대한 것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실업정책을 다 해라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경제정책에서 볼 때는 적정한 실업률을 오히려 요할 수도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구조조정에 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커져서 사회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실업을 보는 각도와 경제를 보는 각도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연관이 있지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실업자의 고통을 직접 접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이 볼 때는 이것 상당히 각도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정부 부처 내의 부처 간 협의기구, 회의체든 뭐든지 좋습니다. 격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차관급의 차관주재 실업대책점검회의 외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장관급 또는 부총리가 주재하든 총리가 주재하든 대통령이 직접 안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런 정도의 회의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勞働部長官 金浩鎭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업정책이 경제부총리가 조정한다고 해서 실업문제를 소홀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시장경제가 살아야만 기업의 고용능력이 증대되어 어느 나라든지간에 결국은 경제의 경쟁력이 중요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마찰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나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정책이나 실업정책이나 같은 틀 속에서 운용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런 견해가 아닌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이 없고,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정책이 바뀌어서 정부가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되었는지 또는 정책이 조정 중에 있는지 제가 이 명료한 현실을, 현 주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총리령, 지시 이런 것들을 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 나름대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 노동부에서 나온 종합실업대책이라는 것이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효과 자체는 어떠한지 하고 아까 全在姬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23일 발표된 청장년층을 위한 정보화 관련 실업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소요예산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석간에 “정보화 관련 실업대책 별볼일 없다.” 그런 비판 기사를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어떻습니까? 기사가 완전히 잘못된 각도라고 봅니까? 저는 상당히 현실적인 비판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이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소요재원이 기금이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산을 거기에 1,950억이나 넣었고 수혜인원도 17만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관계도 없던 2만명 IT인력 훈련도 넣었고 그리고 인턴제도 실질적으로 늘었고,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런 가치평가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金文洙委員** 우선 그것을 내주세요. 이 보고서의 2쪽에 나와 있는 보완실업대책에서 31개 교육기관에서 지금 2,000명을 교육하다가 1만8,000명으로 아홉 배를 늘릴 때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냐, 정보통신부와 이야기하시든지 해가지고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나…… 장관님도 가 보셨겠지만 제가 가 보았을 때 정보통신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교육능력을 늘릴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홉 배씩이나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비판 아닙니까?

언론 비판은 그런 것이지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실업자 창업지원이 5,000억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자기 돈까지 다 같이 안고 동시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창업해서 되는 것이 사실 없거든요. 무슨 제조업이든 상업이든간에 요즘에 구조조정이 가장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이 소규모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축소 구조조정 즉, 중소기업체가 대량 도산 내지 사실상 폐업 사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더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솔직한 우려입니다. 제 주변에서 창업했다가 훌쩍 털어먹고 가정이 깨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인데 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원하는데 5,000억을 쏟아붓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실 수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예.

○**金文洙委員** 그다음에 지금 노동부는 여전히 3%대로 실업률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3%대의 유지를, 3%대의 하향을 목표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망을 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1월달 실업률 전망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6만명이……

○**金文洙委員** 그것을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연평균 3%대에는, 지금 잡고 있는 것이 3.7%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목표 3%대는 수정이 없다 이것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지금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다음에 추가 소요재원에 대해서 여기에는 기금에서 얼마하고 예산 일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업대책 추가 소요재원을 위한 추경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지금 없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지금 현재는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작년 국감 때인 10월4일 우리한테 제출한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보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가지고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하겠다, 비정형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에 준하는 자 개념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조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굉장히 조금 다루었을 뿐 아니라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비정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노동부는 의견이 하나도 없어서 버리고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기존의 비정형근로자를 보호 강화하겠다 하는 의견에 비하면 대단히 후퇴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정책의 전환이 있습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사측의 반발이 심합니까? 정책전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정책전환은 없고 비정형근로자의 보호대책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부처간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또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사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정책이지만 따진다면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金文洙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4일에 발표한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은 여전히 유효하고, 법 개정도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데 부처간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지금으로서는 부처간 의견조정보다도……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장관회의 때 노동부 안이 많이 부결된 것은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사 양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계속 강조하면서 유연성이 안 되어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쪽에서는 고용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고……

○**金文洙委員**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물으면 작년 10월4일 국감시에 노동부에서 마련한 이 대책안은……

○**勞動部長官 金浩鎭** 정책의지는 그때 그대로 입

니다.

○**金文洙委員** 그 정책의지를 표현한 이 보고서는 각 부처간의 의견을 거치지 아니한 노동부만의 의지이고, 노사간의 의견을 예상 또는 반영하지 아니한 노동부 자체의 순수한 열정과 의지의 표현으로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정책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金文洙委員** 변함이 없으나 많은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오늘 보고서처럼 굴절이 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이상입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위원장님! 제가 아까 全在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대우차 동차 정리하고 마지막 발표 결정되기 전까지 노동부로서는 정리해고를 최대한 줄이고 또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순환휴무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이종대 회장한테 했더니 특정기술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한 사람뿐인 경우는 순환휴무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권력 과잉 행사 문제도 저희들이 자제를 하도록 행자부에 많이 권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全在姬委員** 장관님! 지금 제가 장관님하고 金文洙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지켜보면서 아득한 느낌을 갖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지난번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金文洙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특단의 대책은 고사하고 지난해에 만들어 놓은 노동부 대책조차 실현 난망이다 이런 답변이에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金浩鎭**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동부 자체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복수노조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全在姬委員** 저는 장관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다 압니다. 저는 노동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노동부의

고충을 잘 압니다. 그러나 장관님이 그런 의지로 일하면 비정규직은 도저히 개선될 가망이 없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차라리 특단의 대책을 못 내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金浩鎭**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劉容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해서 방금 全在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난 일을 다시 되새기고 들추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이 법은 오늘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그 법안을 의결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특단의 보호대책을 노동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그들이 각종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치 위원장이 듣기에도 그렇고 참석한 위원들이 듣기에도 지난번 노동조합법의 5년간 연기하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를 마치면서 노동부장관 스스로가 말미를 두고 후퇴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생각의 표현이 아니냐 라고 의구심이 갈 정도의 표현은 별로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위원장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장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재확인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全在姬 위원님, 이해가 가지지요?

○**全在姬委員** 알겠습니다.

○**金文洙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있을 수가 있나요? 다른 이야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요.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金文洙委員** 첫째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저도 아까 지적을 했고 全在姬 위원도 여러 번 지적하시고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가 3월10일까지 회기가 연장될 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노동부 부문의 상임위원회를 여야 간사간에 모여서 재소집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3월10일 이전까지 비정규직에 대해서 노동부로서는 그동안 각 부처간 협의과정 중 어떤 난관에 봉착해서, 어떤 타부처의 의견에 접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보호대책에 대해 타부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예상하지 못한 문제, 또 노사간에 이 부분이 어떤 협의를 거치고 있고 어떤 난관을 보이고 있는지 그 양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2월7일 의제로 정식으로 채택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文洙委員** 노사정위원회 또는 노사정위원회에 포함되지 아니한 민주노총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2월 말 기준으로 총괄해서 국회에 보고를 주실 수 있지요?

○**勞動部長官 金浩鎭**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文洙委員** 두 번째로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대체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 노동부는 좀 더 솔직하고 실효성 있는 보고서가 자체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 안 되어 있다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 즉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수용할 수 있느냐, 교육이면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고 교사가 있고 교육기자재가 확보되어 있고 또 교육 이후에 취업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하는 많은 문제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총괄해서 실업대책에 관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3월10일 이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대우자동차를 비롯해서 임금문제를 둘러싸고 소위 춘투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로서 각 부문별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 가지고 별도의 봄철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대책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容泰**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회의를 종결 지으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

했습니다.

우리는 97년 IMF 구제금융이라는 일찍이 경험 해 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한 때 실업자가 2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실업대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온 국민과 국회 그리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어느 정도 실업문제가 해결되었다 싶더니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는 경제불황, 기업의 구조조정과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서 실업자가 100만명에 이르고 실업률이 다시 4.6%까지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금년 초에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 정기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당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청소년인턴제와 관련하여 100억원을 증액해 주었고 산림청소관 예산입니다마는 푸른숲 가꾸기에 400억 등 실업예산을 증액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

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해서 실업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도 또한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부장관 이하 노동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금년도 노동부 최고의 현안은 실업문제의 해결이 제 1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노동부는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단순한 공공근로사업보다는 능력개발, 환경 쪽에 비중을 두어서 일시적 실업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잘 훈련된 고급 기능인력을 다수 확보해서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해 주실 것을 특히 회의 말미에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우자동차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사태를 쪽 보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적 가운데 노동부가 해야 할 업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부 소관 외의 업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는 소관 외의 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계를 짓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자신과 신념에 차있는 그런 답변을 통해서 염려하고 있는 위원들의 의구심을 말씀하게 해소시키고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를 믿고 앞으로 노동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의지에 차있는 그런 활기찬 대책을 제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없는 답변과 현

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답변을 통해서 위원들의 염려를 하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동부는 특히 그와 관련하여 자신있는 답변을 통해서 노동부가 그간에 해왔던 여러 가지 실적을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의 기회들 통해서 노동부의 업적과 노동부의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노동부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위원회에 나오셔서 대책을 설명을 해주셔야 국민들도 안심을 하고 국회도 적극 지원하고 그리고 노동부도 활기찬 대책을 세워나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장관 이하 노동부 전 간부 및 직원들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당 위원회는 크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장관 이하 노동부 간부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出席委員(15人)

金樂冀	金武星	金文洙	金晟祚
朴洋洙	朴仁相	朴赫圭	申溪輪
吳世勳	劉容泰	李相洙	李浩雄
全在姬	鄭宇澤	洪思德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姜長錫
전문위원	李昌熙

○政府側參席者

노동부

장관	金浩鎭
차관	金相男
기획관리실장	文亨男
고용정책실장	金在英
노동국장	鄭秉錫
근로기준국장	朴吉祥
산업안전국장	宋智泰
근로여성정책국장	申洛
고용총괄심의관	盧民基
능력개발심의관	朴龍雄
노사협력관	白日天
국제협력관	崔炳勳
중앙노동위원장	林鍾律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極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崔	相	容
한국산업안전공단 이 사 장	曹	舜	文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이사장	孫	京	鎬
한국노동교육원장	李		銑